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TOUR.GO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426호 (2014년 9월 넷째 주) 정책정보통계센터 · Tour.go.kr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4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대표음식 향연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논의 ····· 8
[해양수산부] 어항,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재탄생 한다 ····· 10
[환경부] 환경살리는 여행,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마을 육성 ····· 11
[해양수산부] 1300년 전 해양실크로드를 향해 돛을 올리다 ····· 14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13% 감소 ····· 16
[서울특별시] "서울 골목길, 꼭꼭 숨은 이야기를 찾아라!" ····· 17
[서울특별시] 무지개마을, 공릉꿈마을...서울 10개 마을로 여행 떠나자 ····· 19
[서울특별시] 서울시민, 하와이 호놀룰루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받는다 ····· 22
[서울특별시] 4色으로 물드는 '서울대공원 가을대축제' 20일 시작 ····· 23
[서울특별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9.25~10.5)', 서울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 27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MICE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 30
[부산광역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3주년, 이용률 매년 급증 ····· 31
[대구광역시] 서프라이즈 관광대구 청년 서포터즈, 지역 최초 출범 ····· 33
[대구광역시] 대구시, 전국 최초'환자확인 공동홍보'실시 ····· 34
[인천광역시] 인천AG·APG 참가 선수들께 인천의 명소를 보여드립니다 ····· 35
[인천광역시] 인천AG 개·폐회식 관람객 인천지하철 무료이용 ····· 36
[인천광역시] 내비게이션·앱에서 인천AG 임시 주차장 확인하세요 ····· 37
[인천광역시] 사진으로 담아낸 인천의 관광자원,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 38
[인천광역시] 인천시티투어 타고 AG주경기장 둘러보세요 ····· 39
[인천광역시] 이제 한류 뷰티 시대를 엽니다, 인천 로데오 뷰티 페스티벌 ····· 40

[인천광역시] 아시안게임 경기보고 팔미도·경인아라뱃길 유람하세요~ ····· 42
[인천광역시]"인천의료관광재단,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안내 현판 전달" ····· 44
[인천광역시] 인천AG 손님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풍성 ····· 45
[인천광역시] 인천 맛집, 외국인 손님들도 편리하게 찾아가세요 ····· 46
[광주광역시] 광주시, 남도골프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47
[광주광역시] 100세 시대 한·중 노인, 체육으로 교류한다 ····· 48
[대전광역시] 대전의료관광, 중국 현지 홍보설명회 개최 ····· 49
[대전광역시] 가을 관광주간(9.25~10.5) 대전으로 추억여행 떠나요! ····· 50
[대전광역시] '기차타고 자연속으로'대전장애학생 및 가족초청 나눔관광 ····· 51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유원지 · 계곡 불법 음식점 106개소 적발 ····· 52
[강원도] 헬스케어 중심지 강원도의 아름다움, 대만에서 통했다. ····· 53
[강원도] 올 가을 낭만여행은 강원도에서 ····· 54
[강원도] 양양공항 연간이용객 개항 12년만에 최고치 경신! ····· 57
[충청북도] 충북 종단열차 타고 오송 바이오엑스포 관람해볼까 ····· 60
[충청남도] "외국인 관광객 까다로운 입맛 잡는다" ····· 61
[충청남도] "가을 가족여행 농촌체험마을로 오세요" ····· 62
[충청남도] "반딧불이의 화려한 군무 청양서 즐겨요" ····· 63
[충청남도] "덕산온천서 마음 따뜻한 힐링 즐기세요" ····· 64
[전라북도] 가을 관광주간, 전라북도를 즐겨라 ····· 65
[전라남도] 전남도, 해양헬스케어단지 유치 나선다 ····· 68
[전라남도] 부산국제관광전 전남관광홍보관 최우수 홍보상 수상 ····· 69
[전라남도] 전남도, 다도해 명소화를 위한「흑산도·영산도」섬 여행 ····· 72
[전라남도] 농업박람회, 40만 관람객·300억 농가 소득 기대 ····· 73
[경상북도] 천년고도를 물들이는 터키 판타지 ····· 74
[경상북도] "포항 자연생태공원으로 가을여행 떠나요" ····· 76
[경상남도] 라스베가스의 관광도시 노하우, 진해 웅동으로 ····· 77
[경상남도] '2014 가을 관광주간'올가을, 추억 여행은 가을향기 진한 경남으로! ····· 79

[경상남도]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경남 관광 알린다 ····· 81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한라산 동·식물의 요람이 되다. ····· 82

[국토교통부] 제주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2일「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주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용역은 항공대에서 수행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 및 외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요예측 모델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 A. Trani 교수(美연방항공청 국가항공운영전략 연구센터 공동연구책임자)

□ 금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항공수요가 2030년경 4,424만 명(연평균 4.4% 증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제주공항 장래항공수요 >

단위 : 만 명

구분	2013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항공수요	2,006	2,309	3,211	3,939	4,424	4,549	4,557

* 2013년은 실적치임

○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제주공항은 2018년경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 제주공항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0.1%, 금년 상반기 성장률 14.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제주공항 이용객 추이 : ('98) 747→('03) 1,080→('08) 1,245→('13) 2,006만 명

○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는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 올레길 등 제주관광 활성화, 중국인 방문객 증가('12년 중국인 무비자입국 시행)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제주공항 저비용항공사 점유율 : ('06) 3.1% → ('13) 53.7%

* 중국관광객 증가추이 : ('08) 17만 5천 명 → ('13) 181만 2천 명

□ 국토부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 제주공항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금년 예산에 용역비 10억 원 기반영

□ 또한, 공항인프라 확충 이전에 예상되는 혼잡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터미널 확장 및 시설 증설·재배치, 항공기 유도로 추가 신설, 관제 처리능력 향상 등 다각적인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단기방안 주요내용

- 터미널 확장·재배치 : (내용) 대합실·입국장 확장, 수화물수취대 증설, 시설 이전배치 등, (기간/사업비) ’13~’15, 115억 원 (효과) 여객수용능력 및 처리효율 향상
- 항공기 유도로 신설 등 : (내용)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계류장 시설 확충 등, (기간/사업비) ’14~’15, 380억 원, (효과) 항공기 이착륙대수 증대 및 병목해소
- 운영효율화 : 관제 처리능력 향상, 출입국 심사인력 확충 등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3)| 등록일 : 2014.09.12.)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대표음식 향연

- 농식품부 아시아음식문화축제 한식홍보 지원, 전통주 전시·홍보, 막걸리, 김치 체험 등 진행

- K-Food 트럭 타고 우리 수출 농식품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16일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및 인천구월동 로데오거리, 인천대학교 등 이벤트 광장에서 우리 음식과 식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먼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 마련되는 아시아 문화축제 이벤트관 내에 한식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식홍보관」을 운영한다.

○ 한식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한식이 과거부터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지, 예를 들어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반상차림, 한식의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웰빙 코스음식, 한식세계화를 위한 퓨전 음식 등 다양한 한식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한식 체험으로 비빔밥, 전통차, 경단, 김치, 전통주 등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맛보고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 한식 경연부분에서는 한식 전문 셰프 초청 요리콘서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 전통혼례 연출,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와 전통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 또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입구(Asiad Street)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 전시·홍보 및 시음·시식을 위한 「전통식품 홍보관」도 운영한다.

* Asiad Street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 광장에서 지자체홍보관, 국가홍보관 및 기업홍보관 등으로 구성된 거리

○ 전통주와 김치, 삼계탕, 순대, 전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전시·홍보하고,

- 특히, 막걸리와 김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시음과 시식을 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전통식품 홍보관 방문객에게는 막걸리 홍보 리플렛(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술 지도('1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제품 및 업체정보 포함), 식품명인 지도(식품명인제품 및 업체정보 포함)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관광객, 외국선수단을 대상으로 「K-Food 트럭」을 활용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 농식품 전시·체험 및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친다.

○ K-Food 트럭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장(고정형 5톤 트럭) 및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인천대학교, 연안부두 등 주요 관광객 집객 장소(이동형 2.5톤 트럭)에서 각각 운영된다.

○ K-Food 트럭 운영 콘텐츠는 ①주요 수출품목인 쌀가공식품, 인삼류, 소스류(장류), 김치류, 한과류 전시, ②수출 농식품 시음·시식, ③고추장·쌀을 활용한 간단 레시피 제공, ④주먹밥·떡볶이 등 쿠킹 시연, ⑤다트·룰렛 등 이벤트 게임과 한류스타 포토존, 전통무술 등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다.

□ 특히,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9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K-Food 트럭에서 셰프로 직접 변신하여, 수출농식품을 홍보하고 이를 이용한 쿠킹 시연을 펼치면서 외국 관광객과 직접 현장 소통을 시도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여 선수와 관광객에게 한식과 한식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식과 전통식품을 바탕으로 한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6)| 등록일 : 2014.09.1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논의

- 9. 22. '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 개최,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방한 기조연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의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활성화 및 국내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2일(월), '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 포럼명 : 제3차 관광 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
> ○ 주 제 : 관광과 개발 협력
> ○ 일 시 : 2014. 9. 22.(월) 14:00 ~ 18:00
> ○ 장 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3년 관광산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하고, 전체 일자리 11개 중 하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다. 특히, 관광은 개도국의 주요 수입원이자 경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도 지난 1961년 1만 명에서 2005년 6백만 명 수준으로 도약했고, 2012년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50여 년 만에 무려 1,000배의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 문체부는 반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유례없는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1% 이하 수준*인 관광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1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 이 중 관광 공적개발원조(ODA)는 22억 원 규모(0.83%). [출처: 국무조정실, '우리나라 오디에이(ODA) 현황 및 정책방향']

□ 이번 포럼에서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 환영사를 시작으로 탈립 리파이(Taleb Rifai)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의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개발 원조 사례' 관련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56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의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관광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관광산업을 7대 유망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지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개도국들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한다.” 라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한편, 문체부는 포럼 직전 이탈리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대사 등 12개국 주한 외교사절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 주최 오찬을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59)| 등록일 : 2014.09.19.)

[해양수산부] 어항,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재탄생 한다

– 11월까지 '아름다운 어항' 공모 · 선정해 관광휴양형 명품어항으로 개발

□ 해양수산부는 "제2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및 "행복한 어촌 만들기" 사업 추진의 하나로 전국 국가어항 109개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어항'을 공모한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어촌·어항이 보유한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개발함으로써 아름다운 한국형 어항을 널리 알리고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다.

□ 공모 절차는 해당 시 · 군은 공모 대상지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10월 28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자체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까지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아름다운 어항(3~4곳)을 선정하여 지역 정체성과 경관성에 기반한 관광·레저·문화 관광의 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다.

□ 아름다운 어항개발은 배후 자연경관과 어촌생활, 고유의 문화원형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창조형 어항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문화창조형 어항사업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어촌·어항의 경관매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다양한 레저·관광·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어촌·어항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어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ㅇ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 사업은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항지역을 경관특화형 명품 어항으로 만들어 국민과 어업인이 살고 싶은 행복한 어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니 만큼 지자체와 지역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아름다운 어항에 대하여 '14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 16년 상반기 부터 착수, '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아름다운 어항 개발은 기존의 수산업 지원기능 중심의 어항에 지역이 차별화된 경관 개선은 물론, 레저 · 관광 · 문화 기능의 융합으로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3)| 등록일 : 2014.09.15.)

[환경부] 환경살리는 여행,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마을 육성

– 고창 용계마을, 신안 영산도, 인제 생태마을, 제주 선흘1리 등 선정, 2017년 관광객 3배 증가 기대

– 환경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생태관광협회 등 육성 협약 참여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7일 오후 전라북도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생태관광 모범사례 육성을 위해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협약식은 관련기관이 협력해 생태관광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이날 행사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 주민대표, 이순선 인제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 : 인제 생태마을(백담·냇강·신월 마을), 고창 용계마을,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등 4곳이며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명품마을, 그 외 생태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

※ 생태관광 : 생태 ·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기존 대중관광의 폐해를 해소하는 대안관광으로 1980년대부터 대두

□ 이번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주민협의체가 설립돼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관광의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 인제 생태마을은 백담·냇강·신월 세 개 마을(476가구, 1,031명)이 함께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사)하늘내린인제로컬투어사업단’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면서 뗏목타기, 도자기체험, 민물새우잡기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대암산 용늪, 비무장지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이날 협약식 개최 장소인 고창의 용계마을은 55가구 8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지자체와 주민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관광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 전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 생물권보전지역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지정현황, 5개소: 설악산(‘82), 한라산(’02), 신안 다도해(‘09), 광릉숲(’10), 고창(‘13)〕

○ 신안군 영산도 명품마을은 20가구 40여명 주민이 어업에 의존하는 마을로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시 국립공원에 남아있기를 희망했다. 2012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무인도화 되어가던 마을이 최근 살아나고 있다.

- 코끼리바위, 층암절벽 등 영산8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흑산도·홍도 등 주변 관광자원도 우수하다.

○ 제주시 선흘1리는 302가구 662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사회적기업으로 2006년 설립된 (주)제주생태관광과 지역주민의 협력기반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습지’와 천연기념물인 벵뒤굴, 4·3항쟁 유적, 독립영화 ‘지슬’ 촬영지 등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환경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곳 4개 성공모델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추가배치,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대중매체 홍보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인제의 주요 생태자원인 용늪의 경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탐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엄격한 안내자(가이드) 동반 탐방을 허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고창 용계마을은 올해 중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2013년 인제 생태마을 등 12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14년 추가 지정을 준비 중임

○ 영산도는 현재 입도 수단이 어선으로 제약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의해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면서 홍도·흑산도 등 주변 관광지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이라는 특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ㅇ 제주 선흘1리는 인근에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방문자센터에 주민 특산품 판매 지원 등 주민 수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환경부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으로 2017년까지 각 마을별로 2013년 대비 생태관광객을 177~390% 수준, 마을소득을 173~25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4개 지역 주민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ㅇ 협약식 이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주요인사와 함께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고창의 대표적인 야생화 관광지인 선운사를 방문해 꽃무릇 군락을 둘러보았다.

□ 윤성규 장관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생태관광협회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생태관광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는 교육부의 협조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관광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ㅇ 또한, 10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상 등 총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하는 생태관광 체험수기·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환경부, 자연정책과(044-201-7220)| 등록일 : 2014.09.18. .)

[해양수산부] 1300년 전 해양실크로드를 향해 돛을 올리다

– 16일 포항에서 해양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 가져

□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9월 16일 오후 2시에 포항 영일만에서 “대한민국 해양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을 가진다. 해양실크로드는 고대 동서양 문물 교류의 교통로 역할을 했던 바닷길을 의미한다.

□ 탐험대는 혜초가 다녀간 바닷길과 육로를 1천300년 만에 다시 따라가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신라인의 해양정신을 이어받고, 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탐험대는 9.16일 포항을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베트남 다낭~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말레이시아 말라카~미얀마 양곤~인도 콜카타~스리랑카 콜롬보~오만 무스카트을 거쳐 이란 이스파한에 이르는 45일간의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에 나서게 된다. 9개국 10개 항만을 거치는 탐험대의 여정은 해로(18,797㎞)와 육로(4,161㎞)를 합쳐 22,958㎞에 이른다.

○ 탐험대는 청년탐험대원 13명, 역사기록팀 4명, 한국해양대학생 92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되었다. 탐험대장은 해양생태학 박사이자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청년탐험대장은 동국대 윤승철 학생이 맡았다. 이번 해양실크로드 대장정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가 함께 한다.

○ 탐험대는 대장정 일정 동안 중국 광저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등 해양실크로드 유적지를 답사하고, 한·중 문화교류와 신라 유적 재조명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경상북도와 중국 광동성(廣東省)간의 문화교류 협력 약정도 체결한다. 중국 해릉도 해양실크로드 박물관에는 신라 금관을 기증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인도에서는 혜초스님의 업적과 세계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순례길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르나트 녹야원에 혜초기념비를 설치하고, 인도국립공과대학 파트나 캠퍼스에서는 혜초도서관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 또한, 해양실크로드 국가 청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오만 대학생 문화교류한마당, 한-베트남 대학생 어울림 한마당, 한-스리랑카 대학생 한글 스피치 대회 등 다채로운 교류의 장도 개최할 예정이다.

□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 해양실크로드 대장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도전정신과 미래 해양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선진 해양강국을 이끌어갈 해양인재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32)| 등록일 : 2014.09.15.)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13% 감소

– 세월호 여파로 이용객 지난해 보다 약 72천명 줄어

□ 해양수산부는 지난 9.5부터 9.11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 동안 지난해(552천명)보다 13% 감소한 480천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단위 : 명)



< 특별수송 일자별 수송인원 >

□ 이는 대체휴일이 이어지는 긴 추석연휴와 양호한 해상기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이용객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도(3만1천여명↓), 울릉도(1만2천여명↓), 서해5도(3천여명↓) 등 장거리 항로와 홍도(8천여명↓), 매물도(4천여명↓), 욕지도(2천여명↓) 지역 여행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는 금번 특별수송 기간 중 연안여객선의 증선(13척)과 증회(1,376회)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이용객의 안전한 수송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명뗏목 작동(샘플) 검사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졌다”며, “여객선 안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등록일 : 2014.09.15.)

[서울특별시] “서울 골목길, 꼭꼭 숨은 이야기를 찾아라!”

- 「서울스토리」 ‘서울 골목길 재발견’ 이야기공모전, 9월 30일까지 확대 운영
- 이야기가 있는 골목, 골목에 담긴 특별한 추억과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관광자원화
  - 골목에 대한 추억담, 테마 골목, 소개하고 싶은 이색골목 등 자유롭게 응모 가능
  -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서울스토리(www.seoulstory.org)가입후 등록
- 늘어난 응모기간과 풍성해진 상품으로 더욱 많은 시민참여 기대
  - 최우수작 1명 상금 20만 원, 우수작 2명 상금 10만 원, 장려작 3명 상금 5만 원
- 향후 테마별 공모전 정례화로 우수 이야기콘텐츠 발굴 활성화

□ 서울시는 8월 15일(금)부터 ‘서울 골목길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온라인플랫폼 서울스토리(www.seoulstory.org)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9월 30일(화)까지 연장 진행한다고 밝혔다.

□ 조용하던 서울의 골목길이 시민들의 잦아지는 발길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세계를 한 자리에 담은 이태원의 경리단길, 한류 스타들의 자취를 따라 그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강남 한류스타거리,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추억의 골목길 서촌 등 개성 있는 테마와 이야기가 가득한 서울의 골목길이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의 온기와 추억이 가득한 골목길이야기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 지난 8월 15일부터 ‘서울 골목길 재발견’ 온라인이벤트 공모전을 열었다. 지난 한달간 많은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서울시는 9월 15일까지였던 응모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휴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시민들이 응모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와 골목길이야기 발굴이 기대된다.

□ ‘서울 골목길 재발견’을 테마로 한 이번 공모전은 ‘내가 살고 있는, 혹은 경험한 골목 관련 추억담, 서울에서 발견한 문화, 교육, 생활 등 테마 골목,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서울의 개성 가득한 골목 이야기’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진과 원고는 본인이 직접 취재하고 촬영한 콘텐츠로 A4 1장 이상 분량이어야 하며,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글자크기 12p. 사진설명 캡션 포함). 동영상의 경우 4분 이상 분량으로 구성해야 한다.

□ 응모된 작품은 소재의 참신성과 원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장려작 3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작은 상금 20만 원, 우수작은 각 10만 원, 장려작은 각 5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한 추첨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 중 30명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글로벌 서울: 해외 명소와 비견될만한 서울 명소 이야기” “서울시의 가을 명소” 등 다양한 주제로 매월 이야기콘텐츠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하고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시민에게는 서울시 스토리텔러 인증 등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의 심사결과는 10월 15일 이후 온라인플랫폼「서울스토리(www.seoulstory.org)」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스토리 또는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16, 070-7864-9151)로 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816)| 등록일 : 2014.09.16.)

[서울특별시] 무지개마을, 공릉꿈마을...서울 10개 마을로 여행 떠나자

- 제3회 「2014 서울마을이야기」 박람회, 20일(토)~27일(토) 전역서
- 구로 무지개마을 등 켜켜이 쌓인 주민 삶 직접 체험하는 '마을여행' 올해 첫 선
- 사전신청하면 집결지에서 모여 기획자와 함께 2~3시간 마을 투어
- 올해 광장에 포옹 이미지 박람회 상징물 설치, 마을역사 담은 마을깃발도
- 20일 광장행사 : 자치구 마당, 마을기업마당,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대합창
- 27일 폐막행사로 '컨퍼런스 콘서트',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 그린다
- 시, "안전, 배려, 협동과 같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서울 전역에 있는 마을과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마을박람회. 「2014 서울마을이야기」가 오는 20일(토)부터 27일(토)까지 일주일 간 시 전역에서 열린다.

□ 특히 올해는 10개 마을을 투어하는 '마을여행'이 첫 개최된다.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한 후 해당 날짜에 집결지에 모여, 여행 기획자와 함께 2~3시간 각 마을의 주민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있는 현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 성북동 북정마을의 경우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도 있어 참가비도 있다.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마을이야기는 '마을, 서로 보듬다'라는 주제로, 주요 프로그램은 ▲광장행사 ▲마을여행 ▲자치구 컨퍼런스 ▲자치구한마당 ▲컨퍼런스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 광장행사는 20일(토) 서울광장에서 하루 종일 열린다.

○ 20일 광장행사 : 자치구 마당, 마을기업마당,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대합창

□ 22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활동을 안내하는 '자치구 마당', 마을기업들의 친환경적이고 빛나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나는 '마을기업마당', 종이공예·우쿠렐레 배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예술창작소', 시민과 함께 하는 '마을대합창'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자치구 마당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보이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생활용품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동화 소품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다보면 어느새 서울 마을공동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마을기업마당 부스에서는 마을 기업들이 만드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을은 장날'과 먹거리가 가득한 '마을은 밥상', 먹거리와 함께 다양한 음악들

접할 수 있는 ‘작은 공연’과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

ㅇ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을대합창은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7개의 마을합창단이 동요부터 국악과 가요까지 각각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곡들을 노래한다. 마지막에는 북한산 초등학교 메아리 합창단의 지휘자이자 2014 서울마을이야기의 홍보대사이고, 대합창의 메인 가수로서도 활약할 재즈가수 말로가 직접 편곡한 ‘아름다운 세상’과 ‘고향의 봄’이 대합창곡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ㅇ 이밖에 종이공예, 우쿠렐레 배우기, 소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만들기 UCC공모전, 어린이 놀이터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

□ 특히 올해는 서울광장에 박람회 상징물이 첫 설치된다. 광장 중앙에 자전거 휠을 길이 40m로 이어 슬로건을 연상케 하는 포옹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각 마을에서 역사와 의미를 담아 제작한 마을깃발도 게시할 예정. 서울광장에 들어서는 상징물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전거 휠을 수거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될 자전거 휠 마을 상징물》

ㅇ 상징물은 마을박람회 종료 이후에 각 마을로 다시 보내지고, 각 마을에서 맞춤형 조형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 아울러 함께 게시되는 마을깃발은 마을소원기원제 공연 시 깃발을 들고 함께 행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 구로 무지개마을 등 켜켜이 쌓인 주민 삶 직접 체험하는 '마을여행' 올해 첫 선

ㅇ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마을여행은 21일~27일까지 각 마을별로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

□ 10개 참여 마을은 ▲ ‘도시의 산책자_창신동(종로 창신동) 살아있는 역사박물관!’ ▲ ‘개미마을 체험!(서대문 개미마을)’, ▲ ‘구로의 실크로드, 구로 장터길 마을여

행(구로 무지개마을)' ▲'성북구에서 즐기는 성북동 밥상 모임'(성북동 북정마을) ▲'수유리로 마실가요'(강북 수유마을) ▲'꿈마을 꿈나르샤'(노원 공릉꿈마을) ▲'시흥5동 마을투어'(금천 시흥5동) ▲'산새마을 이야기 여행'(은평 산새마을) ▲'정든 이웃과 함께 사는 장수마을 이야기'(성북 장수마을) ▲'정릉 따라 정원 속으로'(성북 정릉교수단지)다.

□ 마을 주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여행이라 코스별로 참여가능 인원수가 10명 내외로 많지 않으니, 소소한 일상 속의 여행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자. (신청문의 070-4473-675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또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2014 서울마을이야기 기간동안 진행될 지역축제인 '자치구 한마당'과 마을의 현안을 심도 있게 나누어 보는 '자치구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다.

○ 자치구 한마당에는 모두 8개의 자치구가 참여했으며, 동작구의 동작마을 '동짝꿍떡', 종로구의 '한양도성 봉숭아물들이기 마을축제' 등이 각 자치구에서 열리며, 자치구 컨퍼런스는 동작구, 용산구, 강서구가 참여하여 지역 생태계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 27일 폐막행사로 '컨퍼런스 콘서트',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 그린다.

○ 폐막행사로 27일(토) 14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콘서트'는 딱딱한 컨퍼런스를 넘어서 마을을 꿈꾸고 꾸미는 이들이 다함께 참여해 현재까지의 성과와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그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 「마을계획, 시민이 왕이 되는 '왕의 귀환'을 꿈꾸다 / 서울마을이야기, 서로 보듬으며….」라는 주제 아래 각 마을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미래 마을 가상 시나리오와 여러 마을 기업의 활동영상이 공개되며, 청중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또한, 국악나루의 특별공연과 함께 아리랑 대합창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2014 서울마을이야기의 막을 내리는 전체행사로서 뜻 깊은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행사안내는 마을박람회 카페(http://cafe.naver.com/2014seoulmaeulstory)와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올해는 특히 안전 · 배려 · 협동과 같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마을, 서로 보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2133-6330)| 등록일 : 2014.09.17.)

[서울특별시] 서울시민, 하와이 호놀룰루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 받는다

- 19일(금), 박원순 시장-커크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MOU
- '73년 자매도시 MOU체결 이어,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교류차원
- 양 도시 시민, 상호도시의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할인 받게 돼
- 앞서, 도쿄, 자카르타, 델리, 타이페이 등 4개 도시와 문화관광시설 할인사업
- 호놀룰루 시장단, MOU체결 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및 신청사 투어
- 박 시장,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해외도시 교류협력 늘려 나갈 것"

□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시. 앞으로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호놀룰루시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방문 중인 40년 지기 자매도시의 커크 콜드웰(Kirk Caldwell) 호놀룰루 시장과 19일(금) 만나, 문화관광분야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서울시와 호놀룰루시는 '73년 자매도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과거 자매도시의 형식적 관계를 넘어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류를 하고자 이날 문화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게 됐다.

□ 핵심적으로, 서울시민이 호놀룰루시를, 호놀룰루시민이 서울시를 방문할 때 상호도시의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게 된다.

□ MOU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대상 시설은 실무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시는 앞서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도쿄, 자카르타, 델리, 타이페이 등 4개 도시와 문화관광시설 할인사업을 추진했으며, 베이징, 마닐라 등 시민방문이 많은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직 호놀룰루 시장이 자매도시 교류 협력차원에서 서울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커크 콜드웰(Kirk Caldwell) 호놀룰루 시장은 이날 MOU체결 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인 토피스(TOPIS)를 견학하고 신청사 투어도 한다.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호놀룰루는 오랜 자매도시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 시민이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상 도시들을 늘려 시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02-2133-5288)| 등록일 : 2014.09.19.)

[서울특별시] 4色으로 물드는 '서울대공원 가을대축제' 20일 시작

- ▲단풍 ▲동물사랑 ▲거리공연 ▲책 4가지 주제로 9/20(토)~10/19(일)
- 그림 대회, 사진 강의, 시민작품 전시 등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

① 단풍과 국화로 물드는 공원 : 장미정원, 스카이리프트, 단풍길 등 사진 명소 소개

②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공원 : 스탬프투어, 코끼리똥으로 종이 만들기 체험 등

③ 책 읽는 공원 : 어린이 대상 동물 구연동화는 물론 자연 속에서 즐기는 독서

④ 문화가 흐르는 공원 : 대중음악, 클래식,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 풍성

- 시 "가족·연인·친구와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 기대"

□ 10월 초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둘레를 따라 내려오는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공원 곳곳을 수놓는 탐스러운 가을장미와 국화꽃도 가을의 낭만을 고취시킨다.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맑고 청명한 날씨에 서울대공원에 나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

□ 서울대공원은 9월20일(토)~10월19일(일) 한 달 간 ▲단풍·국화 ▲동물사랑 ▲책 ▲거리공연 4가지 주제로 「서울대공원 가을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다같이 걷자, 대공원 가을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 예컨대, 테마가든에서는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그림 작품이 전시되고 코끼리똥 속 섬유질로 만든 도화지에 귀여운 동물을 그리는 그림 대회가 개최된다. 또, 가족과 연인이 함께 기초부터 고급까지 사진 강의를 듣고 직접 출사도 나가는 '단풍동물원 출사나들이'도 열린다.

□ 올해 「서울대공원 가을대축제」는 ①단풍과 국화로 물드는 공원(테마가든 등) ②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공원(서울동물원) ③책 읽는 공원(테마가든) ④문화가 흐르는 공연(서울동물원·테마가든), 4가지로 펼쳐진다.

〈① 단풍과 국화로 물드는 공원 : 장미정원, 스카이리프트, 단풍길 등 사진 명소 소개〉

□ 서울동물원 맞은편에 위치한 테마가든에서는 5가지 테마로 꾸며지는 〈가을장미와 국화꽃 전시회〉가 열린다. 단풍, 국화, 가을장미, 코스모스 등 총천연색으로 물들어 산책하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포토존이 된다.

○ 테마 하나 '가을에 탐스럽게 꽃피운 장미정원' : 테마가든 장미원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탐스러운 가을 장미를 볼 수 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전지 작업, 꽃눈 만

들기, 시비 작업으로 완성된 가을 장미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테마 둘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정원' : 테마가든 입구와 전시장 중앙에는 프로방스 스타일로 꾸민 정원과 국화로 만든 동물 토피어리가 전시된다.

○ 테마 셋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국화작품정원' : 국화꽃으로 꾸민 대형 한반도 지도와 기린, 말, 공작새, 사슴, 오리 등 동물 조형이 어린이 손님들을 반긴다. 또한, 한 줄기에서 200송이 꽃을 피우는 다륜대작, 나무 둥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고고한 국화분재, 아이 얼굴 크기만큼 크게 꽃피우는 일간국 등 가을 국화가 한자리에 모여 멋을 뽐낸다.

○ 테마 넷 '가을 동화로 꾸민 국화 조형작품정원' : 서울시 창작 동아리 “행복한 드로잉 동인”에서 만든 그림 작품이 대형 책갈피에 그려져 전시되며, 종이 모빌이 함께 꾸며져 재미있는 가을 동화 공간을 연출하는 등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국화 숲, 거울을 이용한 미러(mirror) 정원 등이 조성돼 산책과 사진찍기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 테마 다섯 '수채화로 물들인 꽃무지개정원' : 장미원 옆 꽃무지개원에는 코스모스, 백일홍, 버베나 등 다채로운 꽃들이 펴 마치 파스텔 물감을 끼얹은 듯한 아름다운 오색 정원을 이룬다.

□ 가을의 서울대공원은 산책하는 모든 곳이 사진 찍기 좋은 명소지만 한국관광공사와 서울대공원에 선정한 명소 3곳(▲스카이리프트 ▲'미술관 옆 동물원' 촬영지 ▲남미관 뒤 플라타너스 단풍길)에서 더욱 특별한 가을풍경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다.

○ 스카이리프트에서 바라보는 테마가든과 단풍나무 숲 : 스카이리프트를 이용하면 단풍으로 물드는 서울대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 제1구간(지하철 입구~동물원 정문) : 저수지에 비친 단풍과 테마가든을 수놓는 ‘가을장미와 국화꽃전시회’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 제2구간(동물원 북문~호랑이 숲) : 청계산까지 이어지는 단풍나무 숲 위를 지날 때면 마치 단풍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묘미를 느낄 수 있고 최고의 가을 단풍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촬영지 :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으로 더욱 아름다운 조절저수지 광장(곰사에서 삼림욕장 방향)과 금붕어 광장(남미관 앞)에 위치한 촬영지를 걷다보면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남미관 뒤 플라타너스 단풍길 : 곧게 뻗은 플라타너스 단풍길은 가을이 되면 높은 하늘과 어우러져 더 없이 아름답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멋진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 착한사진연구소 남상욱 대표가 알려주는 사진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을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하는 〈단풍동물원 출사나들이〉는 10월 11일·12일은 가족, 18일·19일은 커플(친구 및 연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공원 : 스탬프투어, 코끼리똥으로 종이 만들기 체험 등〉

□ 동물의 복지를 배려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 보전을 위한 가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동물원에서는 ▲동물탐험대3 ▲코끼리똥종이 만들기 ▲코끼리똥도화지에 그린 동물원 등 놀이를 통해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생각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 동물탐험대3 : 조류독감 해제에 따라 새로 문을 연 열대조류관의 토코투칸과 바바리양, 남아메리카물개, 몽고야생말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스탬프투어가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13시~18시 진행된다.

○ 코끼리똥종이 만들기 : 9월 27일~10월 5일,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코끼리 전망대에서 코끼리똥 속 섬유질을 종이로 재활용하는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와 동물보존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국내에 코끼리똥 종이를 소개한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 코끼리똥도화지에 그린 동물원 : 10월 3일~5일 정문 광장에서코끼리똥도화지에 귀여운 동물을 그리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동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민트바스켓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 '동물탐험대3'과 '코끼리똥도화지에 그린 동물원'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③ 책 읽는 공원 : 어린이 대상 동물 구연동화는 물론 자연 속에서 즐기는 독서〉

□ 테마가든 책 놀이터에서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동물 동화책 읽어주기 ▲나무그늘 책쉼터 등 '책'을 읽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 ‘이야기 상자’가 들려주는 동물 동화책 읽어주기 : 월~금요일 11시, 11시30분, 토·일요일 13시30분, 14시30분, 15시30분 스토리텔링 동아리 ‘이야기 상자’가 동물 구연동화를 들려준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준비된 돗자리에 앉아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나무그늘 책 쉼터 : 토·일요일 13시~18시 수레에 비치된 책을 빌려 단풍 숲 아

래, 국화꽃 정원 한 가운데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책 쉼터 주변에는 해먹, 인디언텐트 등이 설치돼 놀이처럼 책 읽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

〈④ 문화가 흐르는 공원 : 대중음악, 클래식,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 풍성〉

□ 서울동물원과 테마가든 곳곳에서 대중음악, 클래식,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 동물원 거리공연 :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15시, 17시 열린다. 슈퍼스타K 시즌2 출신 가수 김지수(21일·28일)를 비롯해 멸종위기 동물 담비를 후원하는 문화예술인단체 '구하라 담비' 참여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김종락(27일), 남경민(10월3일·4일), 럭키스트릿(10월5일·9일), 유근호(10월11일·12일), 푸르내(10월18일·19일) 등이 출연한다.

○ 사육사 이상림의 동물사랑 마술 : 파충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술을 시작한 이상림 사육사가 매주 토·일요일 15시 동양관 앞에서 마술을 통해 동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 동물복지 나눔 콘서트 : 9월 20일(토) 과천문화원의 난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16시, 서울대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문화예술기관의 재능 나눔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 한편, 서울대공원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리예술가와 소규모 공연팀은 서울대공원 행사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zoofest)에 신청하면 된다.

○ 국화꽃향기 콘서트 : 9월27일~10월19일 14시, 16시 가을 장미와 국화꽃 향기로 가득한 테마가든 잔디밭에 앉아 높은 하늘 아래 아름답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을 들으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은 "단풍과 국화, 가을장미로 곱게 물든 서울대공원 가을대축제에 시민들을 초청한다"며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에서 사진으로 추억도 남기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02-500-7243)| 등록일 : 2014.09.19.)

[서울특별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9.25~10.5)', 서울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 9.25~10.5 외국인 관광객 집중 방문기간 맞아 관광특구 7개 지역에서 운영
- 7개 관광특구협의회, 서울시관광협회 및 한국방문위원회, 서울시 등 공동협력 추진
- 거리 배너, 현수막, 포스터 및 상점 페넌트 등으로 환영 분위기 조성
- 관광특구내 임시 관광안내소 7개소 운영으로 관광객 안내 서비스에 중점
- 풍물놀이, 고적대 행진 및 K-pop 댄스 등 풍성한 거리행사 개최
- 서울의 친절한 이미지 제고로 방문객들의 즐거운 관광 및 재방문 기대

□ 서울시는 가을철,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맞이하여 9.25부터 10.5까지 11일간 시내 관광특구 7개 지역에서 '2014년 가을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7개 관광특구협의회, 서울시관광협회 및 한국방문위원회, 관광경찰, 자치구, 서울시 등 서울시내 관광관련 단체,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 공동협력으로 진행된다.

※ 7개 관광특구협의회 : (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 북창동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사)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사)종로·청계관광특구협의회

□ 올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민의 따뜻한 환대 분위기를 체감하고 서울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 지난 5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첫 번째 운영에서는, 16,139명이 임시 관광안내소(7개 장소)를 다녀가고 관광 안내요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 이 사업은, 2014년에는 지난해 방한 최대국가인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여 진행되며, 향후 2015년부터 일본, 동남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 방한 상위 7개국 관광객 구성비>

계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1,217만명 (100%)	433만명 (35.5%)	275만명 (22.6%)	72만명 (5.9%)	54만명 (4.5%)	40만명 (3.3%)	40만명 (3.3%)	37만명 (3.1%)

□ 행사 기간 동안, 각 관광특구에는 거리 배너, 현수막 등 환영 게시물이 곳곳에 설치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임시 관광안내소가 운영된다.

- 거리 배너 등 환영 게시물은 2014년도 타깃 국가인 중국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 임시 관광안내소에서는 서울 안내지도 등 각종 홍보물이 배부되고 외국어 가능 안내요원의 상주 및 한국방문위원회 친절대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

<임시 관광안내소 설치 장소>

지역명	장소	지역명	장소
이태원	헤밀턴 호텔 부근	명동	명동 우리은행 앞
남대문	남대문 시장 숭례문 방향 입구	북창동	북창동 거리
동대문	맥스타일 앞	종로·청계	젊음의 거리 앞
다동·무교동	어린이재단 앞		



거리 배너



환영 현수막



임시 관광안내소

□ 특히, 이번 가을 시즌에는 보다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 임시 관광안내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자국으로의 기념엽서 발송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이 행사는 지난 봄 시즌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아 1,890장이 해외로 발송되었다.

- 또한, 전통부채 및 음식점 할인쿠폰 증정, 한복 포토월 설치 등 각종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지고 안내소 주변에서는 재즈밴드, 통기타, K-pop 댄스 등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매일 진행된다.

※ 버스킹(busking) : 길거리에서 연주, 노래, 춤 등 자유롭게 공연하는 행위

<관광안내소 이벤트 및 버스킹 공연>



기념엽서 발송


전통 부채


탭댄스 공연


K-pop 댄스

- 한편, 행사기간 주말에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흥겨운 풍물놀이, 고적대 행진 등이 관광특구 거리에서 순회공연 되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거리행진 일정> ※ 풍물놀이 🔵, 브라스 밴드 🔴, 약 20분간 거리 행진

지역명	9.27(토)	9.28(일)	10.3(금)	10.4(토)	10.5(일)	공연팀
이태원	🔵 19:00	🔴 18:00	🔵 19:00	🔴 18:00	🔵 19:00	
명동	🔵 16:00	🔴 16:00	🔵 17:00	🔴 16:00	🔴 15:00	
남대문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북창동	🔵 17:00	🔴 17:00	🔵 16:00	🔴 17:00	🔵 17:00	풍물놀이 🔵
다동·무교동	🔴 17:00	🔵 17:00	🔴 16:00	🔵 17:00	🔴 16:00	
동대문	🔴 19:00	🔵 19:00	🔴 19:00	🔵 19:00	🔴 19:00	
종로·청계	🔴 16:00	🔵 16:00	🔴 16:00	🔵 16:00	🔴 17:00	브라스 밴드 🔴

□ 서울시 강태웅 관광정책관은 “이번에 운영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은 서울이 관광객들에게 관광하기 좋은 도시, 관광객을 환대하는 도시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관광업계와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관광을 하고 돌아가 두 번, 세 번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서울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자세한 안내는 환대주간 운영본부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김동엽 팀장 ☎ 02-757-7482, 명동관광정보센터 ☎ 070-4923-913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02-2133-2812)| 등록일 : 2014.09.22.)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 제4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 부산시, 지역 MICE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MICE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제4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 국제회의 전시 등 MICE 기획, MICE 참가자 관광프로그램, 기타 정책·제도·제안 등 3개 분야 공모(11. 14.까지), 12월 중 대상 등 총 7명(팀) 시상

□ 부산시는 지역 MICE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MICE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함께 11월 14일까지 '제4회 부산 MICE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부산지역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MICE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대학교 전공자 등 신진 인재들의 MICE 업계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신규 콘텐츠를 활용한 MICE 행사 개최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 공모분야는 △국제회의, 전시 등 MICE 행사기획 △MICE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MICE 정책·제도 제안 등 기타 분야로, 공모대상 중 MICE 업계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타 MICE 상품을 단순 모방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모전은 국내·외 거주자로 개인이나 4인 이하의 팀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사항 또는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홈페이지(www.m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처 : 부산관광컨벤션포럼 ☎051-740-7821)

□ 11월 중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상금 300만 원) △우수(상금 200만 원) △장려(2팀, 상금 각 100만 원) △입선(3팀, 상금 각 20만 원)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선한 MICE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신규 MICE 일자리 창출 등 관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연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051-888-4342)| 등록일 : 2014.09.16.)

[부산광역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3주년, 이용률 매년 급증- 이용승객 일 4만2천여 명, 연평균

-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 수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2011년 개통대비 41%(연평균 12%) 수요 증대
- 김해공항 이용 편리성,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수요 증대 효과 나타나…
- 9. 17. 개통 3주년 맞아 이용 홍보를 위해 기념품 증정, 사진 콘테스트 등 기념행사 개최

□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이하 경전철)이 개통 3년 만에 이용객이 무려 41%나 증가했고, 누적승객은 4,005만 명(9월14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 경전철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 삼계에 이르는 총연장 23.2km 구간을 운행하는 도심형 경량전철로, 2011년 9월 개통했다. 부산시역의 광역화와 김해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유발된 두 도시 간 교통난 해소 및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 따라 건설됐다.

□ 경전철 개통해인 2011년 일일 이용승객이 30,084명에서 2012년 33,659명, 2013년 38,112명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9월 현재 기준 42,497명으로 집계돼, 개통초기에 비해 무려 41%, 연평균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전철 일일 이용승객은 지난 4월 11일 59,036명이 탑승해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용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해 부산김해시민들이 출·퇴근시 경전철을 대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사별로는 부산도시철도노선과 환승역인 사상역과 대저역 이용승객이 하루 평균 13,906명(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역은 2011년 하루 평균 1,650명에서 해마다 400~500명씩 늘고 있어 이들 역사가 경전철 이용객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확대를 위해 △노선이 중복되는 시내버스 23대 감축 △이용편의시설 확충 △관내 버스안내정보기 500여 개소 및 김해공항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 △TV·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 등 지속적인 수요창출의 노력을 기울였다.

□ 부산시 관계자는 “서부산유통지구 등 서부산권 발전과 함께 서부산권 교통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경전철은 복합환승기능을 갖춰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전 구간 지상철로로 낙동강의 수려한 풍광을 만끽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면서, “향후 운영여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이용홍보를 통해 이용객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3주년을 맞아 이용홍보 고객감사 이벤트를 개최한다. 개통 3주년인 9월 17일 전 역사에서 고객감사 기념품을 증정하고, 부원역 주변 롯데시네마에서는 경전철과 함께하는 무료영화 시사회,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경전철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051-888-4384)| 등록일 : 2014.09.16.)

[대구광역시] 서프라이즈 관광대구 청년 서포터즈, 지역 최초 출범

- 9. 18.(목), 관광학과관광고생 제1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한국관광공사대구경북협력지사(지사장 강남규)는 9. 18.(목) 16:30 대구컨벤션관광뷰로(북구 유통단지로)에서 지역 대학 관광 관련 학과 및 관광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선발하여 지역에서는 최초로 「제1기 서프라이즈 관광대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 대구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제1기 서프라이즈 관광대구 서포터즈」는 지난 8월, 지역 내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및 관광 관련 학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총 6개교, 36명의 관광지킴이를 선발하였다.

○ 발대식 이후에는 각 3~4명씩 팀을 구성하여 2015년 말까지 대학교수 및 관광고등학교 지도교사 7명과 기타 관광전문가의 지원을 받아(멘토·멘티 제도 운영) 전문 노하우를 습득하고, 대구의 숨은 관광 발굴, 관광상품 개발, SNS 홍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중간 활동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우수 팀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 학과 및 고등학교, 대구컨벤션관광뷰로,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간 관광자원 발굴 프로젝트 MOU 체결식도 함께 갖게 되며, 향후 총괄운영은 대구컨벤션관광뷰로(대표이사 백창곤)가 맡는다.

○ 이번 사업은 대구시의 학 · 관 · 민 · 연을 아우르는 관광 분야 개방형 협력기구 구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종합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관광업계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미래 관광 전문 역량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 대구시 안국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래 우수 관광 대학생들이 직접 전하는 현장 목소리가 대구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취업 및 창업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구관광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광과(053-803-3885)| 등록일 : 2014.09.17.)

[대구광역시] 대구시, 전국 최초 '환자확인 공동홍보' 실시

– 환자 바뀜 사고예방 위해...9월 19일부터 8개 병원서 시작

□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환자확인율 지표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바뀌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 의료기관은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시행 전, 진료, 처치 및 시술 전 환자의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하여 환자확인을 시행하고 있다.

□ 이때 사용하는 두 가지 정보는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이며, 특히 이름의 경우는 환자 본인이 이름을 직접 말하게 하기 위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개방형 질문을 한다.

□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내 이름을 아직도 모르냐"라고 화를 내기도 하므로 의료진이 이름을 묻기 전에 환자가 본인 이름을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대구의료질향상위원회에서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환자확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대구시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은 "환자확인율 지표관리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의료사고 예방과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과(053-803-6442)| 등록일 : 2014.09.19.)

[인천광역시] 인천AG · APG 참가 선수들께 인천의 명소를 보여드립니다

– 대회 기간동안 선수 · 임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투어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 · 임원과 외국인 미디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회기간동안 무료 시내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들의 숙소인 구월아시아드선수촌내 선수서비스센터에 인천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투어를 신청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도심권 2회, 강화권 1회 등 1일 3회의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 도심권은 오전(09:00)과 오후(13:30) 각 1회씩 선수촌을 출발해 월미공원, 도호부청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송도컨벤시아(오후)를 거쳐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된다.

○ 강화권은 오전(09:30)에 선수촌을 출발해 송도컨벤시아, 인천대교, 아라뱃길 전망대, 강화평화전망대, 강화역사박물관을 둘러본 후 인천대교와 송도컨벤시아를 거쳐 선수촌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 투어를 희망하는 선수 · 임원 및 미디어관계자는 선수촌내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접수한 후 해당 일자에 투어 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 시는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도 저상버스 1대를 활용해 도심권 노선으로 1일 2회의 시내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투어 참가자에 대한 통역 · 안내와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관광안내소와 투어버스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시민명예외교관을 배치해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참가 선수 · 임원 등에 대한 투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관광진흥과(☎440-4053)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양 대회에 참가한 선수 · 임원 등이 투어를 통해 인천의 명소를 둘러보면서 경기로 인한 긴장과 피로를 풀고, 인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53)| 등록일 : 2014.09.15.)

[인천광역시] 인천AG 개·폐회식 관람객 인천지하철 무료이용

– 인천AG 개·폐회식은 편리한 인천지하철로

□ 인천교통공사(사장 오홍식)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중교통이용을 통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관람객을 무임수송하기로 했다.

□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입장권을 구매한 시민은 역직원에게 입장권을 제시하고, 인천지하철 29개역을 개·폐회식 당일인 9월19일과 10월4일 12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입장권을 구매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임수송은 수도권전철 중 인천지하철만 실시되며, 경인전철과 공항철도, 7호선 등은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영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개·폐회식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인천지하철 작전역 7번 출구에서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탑승하면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 공사는 개·폐회식 날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역에 직원들은 증원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운수영업처(032-451-2145)| 등록일 : 2014.09.15.)

[인천광역시] 내비게이션·앱에서 인천AG 임시 주차장 확인하세요

- 주경기장 및 개별경기장 등 35개소 경기장 주차정보 안내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람객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및 주차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장별 임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6개소의 임시 주차장 조성을 마쳤으며, 개별경기장을 포함한 35개소 경기장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경기 관람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장별 임시 주차장 정보는 주요 내비게이션인 아이나비와 모바일 내비게이션(SK T-Map, KT 올레, LG U+, 김기사)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핸드폰에 주차장 탐색 애플리케이션(쎌팍, 모두의주차장, 파킹박, 주차프라이스, 파킹히어 등)을 다운받아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경기장 이름(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임시 주차장을 검색하면 경기장별로 이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 개·폐회식 당일에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쎌팍’,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주차가능 임시 주차장 및 잔여 주차대수 표출 등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에서는 대회가 개회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점검을 완료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개·폐회식 및 개별 경기장의 주차장이 선수단 등 관계자 이용 및 보안상의 문제로 이용이 어려운 만큼 원활한 주차 및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해 사전에 임시 주차장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032-440-3925)| 등록일 : 2014.09.16.)

[인천광역시] 사진으로 담아낸 인천의 관광자원,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 대상에 장현수作「능동자갈마당」, 9.19~9.25일 시청 중앙홀 전시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오고 싶은 인천, 즐기고 싶은 인천」을 주테마로 인천의 관광자원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제5회 인천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에는 1,091점의 작품이 접수돼 해당 분야 전문 심사진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40개 작품이 선정됐다.

○ 대상은 옹진군 덕적도 해변을 촬영한 장현수씨(경기)의 「능동자갈마당」이 차지했고, 특별상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김정호씨(인천)의 「동화마을」이 차지했다.

○ 우수상에는 권오숙씨(인천)의 「부근리 고인돌」과 심재안씨(서울)의 「고기말리기」, 김용환씨(인천)의 「논현지구」 등 3점이 선정됐으며, 입선에는 그외 35명이 선정됐다.

□ 「능동자갈마당」은 모래 대신 주먹만한 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 끝에 병풍처럼 늘어선 기암절벽이 절경인 해변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 서해의 아름다운 섬이 재조명됐다.

「동화마을」의 장소는 중구 송월동 위치해 인근 차이나타운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는 곳으로 작품 속 거리를 지나는 소녀들의 모습이 세계명작동화 속 주인공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이번 공모전은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인천투어 홈페이지 관광명소 이미지(http://itour.visitincheon.org/travel/01_01/photo_intro.jsp) 코너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kor.kto) 온라인 사진갤러리에서 동시에 게시된다.

□ 아울러, 공모전에서 수상한 40개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회가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시청 중앙홀에서 진행된다.

○ 시상식은 9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55)| 등록일 : 2014.09.16.)

[인천광역시] 인천시티투어 타고 AG주경기장 둘러보세요

- 9.20~10.3일 노선 변경해 1일 3회 주경기장 경유 운행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티투어의 노선을 변경해 1일 3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경유하는 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웅장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노선을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현재 1일 4회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티투어 도심권 기존 노선의 방문지를 조정해 1차(11:00~14:30), 2차(12:00~15:30)와 4차(14:30~18:00) 등 3회에 걸쳐 노선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선은 인천역을 출발해 인천항, 컴팩 · 스마트시티,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경유한 후 다시 인천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 요금은 1만원이며, 48개월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는 2천원, 관광주간 참여자는 20%를 할인해 준다.

○ 도심권 3차와 강화권 노선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 인천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티투어 홈페이지(http://citytour.visitincheon.org/)를 참고하거나 전화(☎772-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관람하고 인천의 명소로 자리잡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53)| 등록일 : 2014.09.17.)

[인천광역시] 이제 한류 뷰티 시대를 엽니다, 인천 로데오 뷰티 페스티벌

– 9.26~9.28일 구월로데오거리, 뷰티 매체를 활용한 인천AG 축제 붐 조성

□ 인천광역시(시장 : 유정복)에서는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 로데오 뷰티 페스티벌(2014 Incheon Rodeo Beauty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웰빙(Well-Being)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부합해 성장하고 있는 한류의 뷰티를 인천아시안게임의 “관광·수출콘텐츠”로 연계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뷰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아시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 특히, 구월동 로데오상가연합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현대의 각박한 사회에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콘셉트로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인천의 최대 뷰티 벨라 거리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또한,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선수·임원 및 국내·외 관람객 등 20,000여명에게 뷰티 문화에 대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 주는 등 이번 아시안게임의 축제 붐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축제 기간에는 차별성(Difference), 교육의 장(Education), 소통과 화합(Communication & Harmony)의 콘셉트로 뷰티를 통한 흥미로움과 일상에서의 탈피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번 축제는 크게 공연을 비롯해 전시, 경연, 참여체험으로 실시되며,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 먼저 축제 첫날인 9월 26일에는 어가행렬, 퍼레이드(풍물단)를 통해 축제의 흥을 돋운 후 “벨라” 로데오 뷰티 특화거리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소재한 대형 미용업소 영업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미용인들의 재능과 끼를 맘껏 발산하는 뷰티 헤어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 둘째날인 9월 27일에는 K-Pop 커버댄스를 비롯해 연체 비보이 공연, 섹소폰 공연이 실시되며, 뷰티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디 페인팅 경연대회를 실시해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 마지막날인 9월 28일에는 시민 노래자랑을 비롯해 가수 에메랄드캐슬 등의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

□ 또한, 축제기간중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을 비롯해 헤어작품 전시, 화장품 전시관, 뷰티기기 소모품관 등의 체험·전시행사와 10월 할로윈데이를 맞아 공포스러운 특수 분장 메이크업쇼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분장 메이크업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뷰티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뷰티 축제를 통해 앞으로 로데오거리를 뷰티관광 콘텐츠로 발굴·육성하고, 미용(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의료(성형외과, 피부과), 패션(주얼리), 의류, 화장품 제조·판매업소 등과 관광 벨트화해 뷰티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032-440-2792)| 등록일 : 2014.09.17.)

[인천광역시] 아시안게임 경기보고 팔미도 · 경인아라뱃길 유람하세요~

– 대회기간동안 선상 투어 유람선 한시 운영

□ 인천아시안게임 기간동안 경기 관람객을 위해 팔미도와 경인아라뱃길 선상 투어를 위한 유람선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인천광역시는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는 현대해양레져와 이랜드 크루즈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도 응원하고, 경인아라뱃길 유람선과 갑문체험,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두루 여행할 수 있도록 대회 기간동안 유람선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은 현대해양레져에서는 연안부두↔서해갑문↔경인아라뱃길↔시천나루를, 이랜드크루즈에서는 여의도↔한강갑문↔경인아라뱃길↔시천나루간 노선을 각각 1일 2회 왕복 운항한다.

□ 선상투어에는 국내 최대의 크루즈형 유람선 현대크루즈호(1,000명 승선)를 투입해 퓨전음악, 마술, 변검 등 다양한 선상공연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현대크루즈호는 시천나루에서 반환해 다시 연안부두로 회항한다.

ㅇ 가격은 1인 왕복 대인은 20,000원 소인은 10,000원이다.

□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시티호는 김포터미널을 경유하며, 승객들은 우바호로 환승해 시천나루까지 갈 수 있다.

ㅇ 티켓은 승선전날까지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가격은 인천 방문 내 ·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기획상품으로 1인 편도 대인 18,000원, 소인 15,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 한편,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섬 팔미도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에 맞춰 등대 역사관을 개관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ㅇ 투어는 연안부두 선착장에서 하루 1회(12:30) 왕복 운항하며, 요금은 왕복 대인 22,000원, 청소년 18,000원, 소인 15,000원이다

□ 아시안게임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에게는 팔미도와 아라뱃길선상투어 유람선 요금의 30%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와 임원진, 기자들에게는 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요구되는 만큼 유람선을 이용하면 한강하류, 갑문체험, 경인아라뱃길 투어는 물론,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팔미도 유람선 예약은 현대마린개발(☎032-885-0001)로 문의하면 되며, 경인아라뱃길 선상 투어는 현대해양레져(☎032-882-5555), 이랜드크루즈(☎031-985-8741)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032-440-2792)| 등록일 : 2014.09.19.)

[인천광역시] “인천의료관광재단, 외국인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안내 현판 전달”

– 인천의료관광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

□ 인천의료관광재단(이사장 배국환)은 9월 17일(수) 인천 IS한림병원에서 의료관광 협력 의료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인천의료관광재단 실무협의회와 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서 인천의료관광을 이끌고 있는 25개 회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현재 인천 관내에는 100여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어렵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도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번 현판 제작을 통해 인천을 찾은 의료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및 의료기관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를 함으로써 인천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현판의 “1-Hour Medical Service”란 로고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자리 잡고 있어 의료관광객이 1시간 내 인천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특징과 인천의료관광재단 파트너라는 의미를 담은 인천의료관광 고유브랜드이다. 최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환승고객을 대상으로 피로해소, 건강진단 등의 의료서비스로 구성된 다양한 환승상품을 개발했다. 재단은 2020년까지 연간 외국인환자 10만 명을 목표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을 ‘헬스케어(Healthcare)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천의료관광재단은 2011년 8월 출범했으며, 같은 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인천의료관광재단 실무협의회”를 발족 시켰다. 협의회는 지난 7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쳐 인천의료관광재단과 파트너로서 인천시 의료관광을 이끄는 의료기관의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 인천시는 2011년 재단 출범 당시 4,004명이였던 외국인환자가 2012년 6,370명, 지난해 10,432명 등 지난 3년간 모두 20,806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진료 및 관광수익 479억원, 의료관광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500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은 63.8%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수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광역단체 중 4위의 실적이다. 지난해 인천 외국인환자 10,432명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3,685명(3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9.5%), 미국(8.1%), 몽골(3.7%)등 순이다.

(인천광역시, 경영지원팀(032-260-3105)| 등록일 : 2014.09.19.)

[인천광역시] 인천AG 손님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풍성

– 관광안내지도 배부 및 손님맞이 다양한 행사 마련

□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대단원의 막을 올린 가운데, 인천의 사람사는 냄새와 정감어린 삶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국내 · 외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시는 (사)인천상인연합회와 함께 '2014 인천전통시장 관광안내지도(로드맵)' 2만부를 제작해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홍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20곳에 배부했다.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영어 · 태국어 · 몽골어 등 6개 국어로 제작된 관광안내지도에는 인천의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 지하도상가의 위치와 소개, 특색음식거리 등을 수록해 국내 · 외 관광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광 및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는 9월 26일부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시장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공연, 시장스타 장기자랑, 체험행사, 나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제3회 모래내시장 축제인 '모래내 장풍 행사'를 개최한다. '모래내시장에서 불어오는 행복한 바람'이란 의미인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시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무대행사, 체험행사, 나눔행사가 펼쳐진다.

남구 용현시장에서는 오는 9월 27일 한마음축제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상호 협력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중구에 소재한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14 연안부두 · 어시장 축제'를 개최해 초청가수 공연, 시민참여프로그램, 노래자랑 및 부대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단순한 마켓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아시안게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고, 전통시장을 찾아 인천의 활기차고 정감어린 모습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032-440-4222)| 등록일 : 2014.09.21.)

[인천광역시] 인천 맛집, 외국인 손님들도 편리하게 찾아가세요

– 인천시, 국내·외 관광객 편의 위해 외국어 표기 맛집 책자」 제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로 인천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 곳곳의 맛집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안내책자 「좋은 음식, 행복한 여행(GOOD FOOD, HAPPY TRAVEL)」 3천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 국내 · 외 관광객의 음식점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인천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제작한 맛집 외국어 안내책자는 경기장 주변의 우수 음식점과 외국인 편리 음식점, 명품음식점 등과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특색음식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책자에는 외국인 편리음식점 147개소, 맛집 310개소, 2013~2014 인천 스토리텔링 맛집 품평회 참가업소 20개소, 명품음식점 7개소, 우수 특색음식거리 12개소, 숙박업소 569개소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를 병행해 표기했다.

ㅇ 또한,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인천지하철 노선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배낭 여행객을 위해 한손으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소형 규격으로 만들어 졌다.

□ 맛집 외국어 안내책자는 인천지역 9개 관광안내소(강화, 옹진 지역 제외)와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각 경기장 안내소를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시 및 각 군 · 구 홈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파일을 함께 게재해 이용객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맛집 관광 안내 지도를 통해 인천을 찾는 내 · 외국인 관광객에게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맛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인천 이미지를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032-440-2798)| 등록일 : 2014.09.21.)

[광주광역시] 광주시, 남도골프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 26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사옥, 골프·관광업계 대표 등 대상

□ 광주광역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광주·전남지역의 골프투어 활성화와 골프 관련 산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는 26일 한국관광공사 사옥 tic 상영관에서 '남도골프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 전남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국내 골프업계와 관광업계 대표, 골프 전문기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남도골프투어 프리젠테이션, 상품홍보, 클럽소개와 함께 현장상담도 진행해 남도골프투어에 대한 업계의 관심 유발은 물론 상품의 현장판매도 가능하다.

□ 시는 지난 6월2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ktx와 연계한 남도골프투어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골프관계자 팸투어 등 마케팅을 지속해 오고 있다.

□ 남도골프투어 상품은 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광주·전남지역의 17개 골프장과 여행사, 코레일 등이 공동 협력해 지난 2013년 출시된 상품으로, 남도의 맛과 관광자원을 골프와 결합한 것이다. 이 상품을 통해 지난해 골퍼 1600여 명을 유치했고, 올해도 광주권 골프장의 추가 참여와 ktx 골프 전용칸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어권별 홈페이지(누리집)과 홍보물을 제작해 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국내 골프인구가 매년 7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결합된 남도골프투어상품은 매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수도권 등 국내 골프 마니아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23)| 등록일 : 2014.09.18.)

[광주광역시] 100세 시대 한중 노인, 체육으로 교류한다

– ‘한중 노인 체육교류 행사’ 통해 중국과 친해지기 박차

□ 광주광역시는 중국 노인단체들이 ‘한·중 노인체육교류 행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지난 20일에는 중국 대련시 노인 게이트볼팀 100여 명이 광주생활체육회 게이트볼팀 100여 명과 상무지구 생활체육회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친선경기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 22일에는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중국의 320여 명과 광주의 50여 명이 100세 시대 건강 생활체조와 무술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중국 길림성 길림시 및 송원시 무술협회가 참여하는 이번 교류에는 중국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연마하는 태극선, 태극검무 등과 광주의 강귀자건강증진센터, 풍류선 무예술단의 건강증진 체조 등이 교차 공연된다.

□ 시는 지난 2009년 이후 중국 노인단체 유치를 위해 중국 관광시장을 집중 공략, 하남과 길림, 천진 등 10여 개 지역에서 노인교류단을 유치해 총 2만여 명과 광주지역 노인 7000여 명이 교류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민선6기 중점 추진사업인 중국과 친해지기사업의 하나로 한·중 노인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 급증하는 중국 관광시장을 선제 공격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30)| 등록일 : 2014.09.22.)

[대전광역시] 대전의료관광, 중국 현지 홍보설명회 개최

– 동북3성 의료관광 유치기관 대상 설명회, 박람회 성황리 개최

□ 대전시는 한류 순풍을 이용해 대전의료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9월 12일 중국 동북3성의 중심도시 심양에서 '2014 대전의료관광 홍보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014 대전의료관광 홍보설명회』는 대전마케팅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협력지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대전지역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플러스성형외과, 벨라쥬여성의원, 메디넷-I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중국 동북3성의 주요도시 심양, 대련, 하얼빈 등에서 의료관광 및 여행업에 종사하는 홍보 마케팅 담당자 및 관계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심양지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관광 전담여행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먼저,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의료관광을 대표하여 대전의 다양한 의료자원과 K-FARM(농촌체험형의료관광) 같은 관광자원을 홍보하였고, 함께 참가한 플러스성형외과, 벨라쥬 여성의원, 메디넷-I에서도 각자 병원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 한편, 이번 홍보설명회 뿐 아니라 중국 심양 요녕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 한국관광명품전'에도 참가하여 의료관광 서비스, 대전의 주요 관광자원과 명소도 함께 홍보하였다. 한국관광명품전은 '중국 심양관광전'과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일일 관람객수가 3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 대전마케팅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협력지사는 올해부터 의료관광 타겟시장으로서 중화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처럼 중국현지설명회나 박람회 참가 뿐 아니라 동북지역 기업의료관광 인센티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대전광역시, 의료관광팀(042-869-5204)| 등록일 : 2014.09.15.)

[대전광역시] 가을 관광주간(9.25~10.5) 대전으로 추억여행 떠나요!

-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등 29개 특별프로그램, 6개 관광코스개발 등

□ 대전시는 가을 관광주간(9. 25~10. 5)을 맞아 관광시설물 점검, 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 수용태세 점검과 관광코스 개발, 할인서비스 제공 등 손님맞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18일 시에 따르면 가을 관광주간 주요운영 사항은 ▲(특별프로그램)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등 29개 프로그램 운영 ▲(할인서비스) 할인업소(67개) 쿠폰북 3,000부 제공, ▲(추천코스) 대전관광 추천코스 개발(6개), ▲(홍보) 타 시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특별프로그램으로는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대전시립교향악단공연, 대전인디음악축전 등이 운영된다.

□ 또한 대전관광 추천코스로는 오감으로 느끼는 가을가족 체험여행, 타슈타고 도심자전거여행, 대전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등 총 6개 코스가 개발 운영되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 하고 있다.

□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광 변화 여건을 반영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관광산업과(042-270-3973)| 등록일 : 2014.09.20.)

[대전광역시] ‘기차타고 자연속으로’ 대전장애학생 및 가족초청 나눔관광

–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협력지사 후원, 2회 실시

□ 대전시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협력지사(지사장 윤재진)가 9월 19일과 26일 각 2회에 걸쳐 장애인학생 및 가족 80명을 초청하여 나눔 관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기차타고 자연속으로’라는 테마로 대전장애인 부모회 학생 등 40명을 초청하여 19일 서천국립생태공원과 신성리 갈대밭 등을 관광한다.

□ 이어 26일에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교육생인 지적장애인 40명을 초청하여 서천 국립생태원과 백제문화제 등 역사생태관광 투어를 실시한다.

□ 이번 여행은 그동안 여행의 기회가 적고, 자녀의 보살핌 등으로 힘든 18세 미만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동반 참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의미 있는 가족여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세영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가족 초청 나눔관광을 후원해준 관광공사 대전충남협력지사측에 감사하고, 여행기회가 적었던 장애학생과 부모와 보호자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힐링여행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71)| 등록일 : 2014.09.20.)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유원지 · 계곡 불법 음식점 106개소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영업행위 음식점 등 대거적발
- 특사경 상습 미신고 업소 329개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

□남양주 수락산, 수원 광교산 등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 온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9일간 도내 주요 유원지와 계곡 1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음식점 106개소를 적발, 형사 처벌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시 수락산 계곡 18개소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내 18개소, ▲고양시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 주변 7개소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변 8개소, ▲양평군 용문산 조계골, 중원계곡 일대 14개소 등이다.

□ 한편, 이번 단속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미신고 불법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32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식품접객업소가 306개소, 숙박업소가 23개소였으며 입지별로는 유원지, 계곡이 202개소, 바닷가, 항구는 46개소였다.

□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신고된 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불량식품 판매 가능성이 높다”며 “상습적인 미신고 업소 329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리스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04)| 등록일 : 2014.09.16.)

[강원도] 헬스케어 중심지 강원도의 아름다움, 대만에서 통했다.

□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센터장 지기선)는 강원헬스케어 타깃지역인 대만에서 강원헬스케어(에스테틱 교육 상품 & 힐링 포토 여행상품) 설명회(9.12)를 개최했다.

※ 에스테틱(aesthetic) : 피부미용 전문가의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 것

□ 대만 최대의 국제미용박람회인 국제미용화장품전(9.11~15) 기간에 맞추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미용협회 및 관련 학교, 웨딩업체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대만 최대 규모 미용협회(중화시상미용협회)와 한국피부미용사회 강원도지회와 센터의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등 쾌거를 거두었다.

□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지난 7월 타이베이 한국문화관광대전 참가 시 현지 한류열풍과 한국 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에스테틱 교육 + 문화체험 + 관광을 결합한 헬스케어 미용교육SIT(Special Interest Tourism)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교육생 모집이 가능한 우수 미용협회 및 학교 등 기관을 조사하는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교육생 유치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금년 11월 중화시상미용협회가 주관하는 대만 전국 미용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상품 홍보 및 중화시상미용협회를 현지 상품 판매 거점기관으로 하는 내용 등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피부미용교육생 유치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미용기기 및 화장품 등의 수출까지도 연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강원헬스케어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재)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는 도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광역경제권선도산업 강원헬스케어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033-258-6900)| 등록일 : 2014.09.15.)

[강원도] 올 가을 낭만여행은 강원도에서

- 관광주간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 실시

□ 강원도는 오는 9월25일부터 시작되는 관광주간을 맞이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 관광주간 : 9.25(목)~10.5(일), 11일간

□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특별 관광상품을 주제별로 정하여출시하고, 물레길 페스티벌 등 특별 이벤트 개최, 도내 관광지 및 접객업소 할인 실시, 수도권 홍보마케팅과 손님맞이 환대분위기 조성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관광주간 특별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출시

○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춘천 의암호, 화천 춘천호, 양구 파로호, 인제소양호 등 4개 호수에서 수상 레저 페스티벌인 ?강원 4대 호수, 물레길 페스티벌?이 오는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11일간 성대하게 펼쳐진다.

< 물레길 페스티벌 행사계획 >
○ 기간 : 2014. 9. 25 ~ 10. 5, 11일간
○ 장소 : 4대 호수(의암호, 춘천호, 파로호, 소양호) 수상 및 수변
○ 주관 :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4개 시?군(춘천,화천,양구,인제), (사)물레길
○ 내용 : 4대 호수를 활용한 수상 레저 페스티벌 개최
※ 대표 문의처 :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033-249-3347

○ 또, 춘천권 “가족과 함께하는 물위의 행복”, DMZ권 “평화통일 기원과 안보생태체험”, 동해안권 “바다로 떠나는 낭만여행”, 설악권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추억여행”, 태백권 “고생대 자연사 지질공원체험” 등 주제별 관광코스와 타깃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여행업계(하나투어 등)와 공동으로 특별상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 또 강릉 커피축제, 횡성 한우축제, 양양 송이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2014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속초 설악문화제, 횡성 한우축제, 영월 김삿갓문화제, 정선 아리랑제,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등도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개최된다.

○ 특히, 이번 가을 관광주간 기간 중 개최되는 춘천 물레길 페스티벌, 원주 한지문화제, 횡성 한우축제, 강릉 커피축제 및 국제민속예술축전, 정선 한국민속예술축전 등 6개 지역축제와 예술축전은 매일 1회 이상 서울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수도권 체류 유학생, 주재원, 기업인, 관광객 등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셔틀버스 예약관련 안내 : 동보여행사(02-3781-2600).

□ 둘째, 방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 및 인센티브 제공

○ 관광주간 기간 중 강원도 내 박물관, 관광지 등 도내 공공운영 시설 22개소에서 10%에서 최고 50%까지 입장료를 특별 할인하고,

○ 레일바이크, 짚와이어, 카약 등 34개소 체험시설에서는 이용료 할인이나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 호텔, 콘도 등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민간운영 50여개 업소에서도 5%에서 최고 30%까지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도 관광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8.27.(수)~9.12.(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 강원도로 갈래요”라는 주제로 강원도로 가고 싶은 이유 글쓰기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120여명을 선정하여 리조트 숙박권, 입장권, 시설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 셋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홍보마케팅 추진

○ 중국 국경절(10.1~10.5) 방한 예정인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경품·기념품 증정 특별 이벤트 실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의 도내 체류 유도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서울과 도내 축제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색있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수도권 관광객 유치 거리 홍보캠페인, 수도권 지하철 특별광고,관광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경품이벤트 실시, 관광서포터즈 활동 등 특별이벤트와 관광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 넷째,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및 손님맞이 준비

○ 관광주간 기간 중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 접객업소, 상가 등에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고, 관광안내소와 리조트에 관광홍보물 비치,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 174명과 관광통역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상시 배치하여 언제든지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 또, 외국인 개별 여행객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언어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 관광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친절·청결·질서·신용 4대 덕목 실천 확산을 위한 언론과 거리캠페인, 교육 등 실시로 손님맞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환대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도(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는 이번 관광주간을 강원도 방문주간으로 활용함

과 동시에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상품개발과 손님맞이 준비태세를 사전 점검하고 전국 최고의 국민관광 휴양지로서 위상 제고와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033-258-6900)| 등록일 : 2014.09.15.)

[강원도] 양양공항 연간이용객 개항 12년만에 최고치 경신!

– 국제선 12년간 누적이용객 금년 9개월만에 경신

□ 강원도는 9월 22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장성호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 연간이용객 개항이후 최고치 경신에 따른 축하 행사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14. 9. 22(월) 15:00※ 14:10부터 식전 공연

○ 장소 :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2층)

○ 참석 : 100명 내외

○ 주요행사 : 식전공연(갯마당 등), 본행사(감사패 수여, 축사 등), 면세점 개장식

○ 주요인사는 이성용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이병선 속초시장, 윤승근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최성철 삼척시 부시장, 김성근 도의원, 장석삼 도의원, 김진기 속초시의회 의장, 최홍규 양양군의회 의장, 이광 진에어 경영지원본부장, 간지앙 중국 남방항공 한국지점장, 노승영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회장, 김용 중국 대련 금학항공 회장 김종후 강원도 관광협회장, 강신환 강릉중앙시장번영회장, 노종팔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장, 박장수 양양시장번영회장, 김재기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했다.

□ 양양국제공항 2002.4.3. 개항부터 지난해까지 한해 동안 최다 공항 이용객은 개항 첫해인 2002년에 217,115명 이였으나, 개항 12년 5개월만인 금년 1.1~9.22까지 공항이용객이 219,761명으로 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다.

○ 공항 이용객 추세 : (‘02) 217,115명 →(’ 05) 60,690명→(‘09) 3,066명(‘13) 51,541명 → (’ 14.9.22현재) 219,761명

※ 국제선 이용객 추세 : (‘02) 5,685명→(’ 05) 6,827명→ (‘09) 0명(‘13) 38,050명→ (’ 14.9.22현재) 152,522명

□ 9월 22일 현재 금년도 공항이용객은 219,761여명으로 예상,

○ 국제선 24개노선에 916편 운항해서 152,522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 중국 23개노선 152,034명,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노선 488명

○ 국내선은 4개노선에 1,273편 운항해서 67,239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 제주노선 55,028명, 김포노선 1,265명, 김해노선 8,603명, 광주노선 2,343명이다.

※ 전년 동기와 대비할 경우

- 국제선은 전년 5개노선 219편 운항 28,851명 보다 5.3배 증가
- 국내선은 전년 3개노선 836편 운항 9,142명 보다 7.3배 증가

□ 공항이용객을 국적별로 보면

○ 국제선 이용객 152,522명중 중국 관광객이 98.3%인 150,002명이고, 내국인이 1.5%인 2,280명, 러시아 관광객이 0.2%인 240명이다.

○ 국내선 이용객 67,239명중 중국 관광객이 56,245명이고, 내국인이 10,994명이다.

□ 탑승률은

○ 국제선 평균 탑승률은 91.6%로, 정기편인 상해노선 85.6% 이고, 중국 22개 전세기편은 92.5%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 국내선인 제주노선 86.9%, 김해노선 71.4%, 광주노선이 57.9%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 한편 개항부터 지난해까지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115,070명이나, 금년은 9월 22일 현재 152,522명으로 지난 12년간의 누적이용객을 9개월 만에 경신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이러한 성과는 양양공항 활성화 방향을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또한 국제선 취항도시도 개항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상해 등 총 17개 도시이나, 금년은 9월 22일 현재 중국 2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24개 노선 개설로 11년동안의 누적 취항도시를 넘어섰다.

□ 이렇게 공항이용객 및 취항도시를 개항 12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배경은

○ 2018평창동계 올림픽 유치 계기로 공항활성화의 필요성이 강화되었고,

○ 공항활성화 운영방향을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고

○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시 운항장려금 등 인센티브 시책이 적중

○ 여행상품에 동해바다와 잘 어우러진 설악산, 낙산사, 경포대 등 우수한 문화 관광자원이 중국인의 마음을 강원도로 끌어 들였기 때문이다.

□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계기로 연계파급되고 있는 현상으로는

○ 공항이용객들이 도내 숙박, 식당, 관광지 방문 등 체류 소비로 지역경제에 기여

- 중국 관광객 도내 2박체류 동안 소비액 조사결과

▶2012년 : 대련노선 이용객 1인당 218천원, 하얼빈노선 이용객 1인당 244천원

▶2014년 : 창사노선 이용객 1인당 248천원 소비

ㅇ 농수산물 식자재 공급, 호텔·콘도·음식점 등의 일자리 지역주민 채용

ㅇ 공항활성화로 일자리 창출(118명) 및 지역내 거주로 인구 증가

ㅇ 국내외 자본가의 강원도에 대한 투자 관심 증가 및 투자 가시화

- 중국 2개 투자자 : 3,740억원(샹차오홀딩스 2,000, 금학항공 등 3자합작 1,640억원 등)

- 국내 투자자 : 5,639억원(롯데리조트 조성 2,390억,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2,284억원, 양양 휴양·판매복합시설 420억원 등)

ㅇ 중국 식당 및 강원도 특산품 판매장 설치 부지지원 요청 : 500평

ㅇ 상해 정기편으로 동해안 홍게 등 수산물 수입 추진 : 매편 2톤

ㅇ 도내 신규 국책사업 타당성조사(B/C)시 경제성과 당위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 최문순 도지사는

ㅇ 2015년에는 50만명 시대를 열어가도록 항공노선 다변화와 정기 노선 확대를 집중 추진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도에는 100만명 시대를 열어 자생력으로 공항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ㅇ 양양공항을 관광, 물류수송 등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동북아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도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033-249-3391)| 등록일 : 2014.09.19.)

[충청북도] 충북 종단열차 타고 오송 바이오엑스포 관람해볼까

□ 충북 종단열차(5월 1일 개통)를 이용하면 도내 남·북부 지역 주민들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

□ 그 동안 같은 충북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송까지 오기 불편했던 충북의 남·북부 주민도 충북 종단열차를 타면 도내 최남단인 영동과 최북단인 제천·단양에서도 각각 1시간 30분 정도의 적은 소요시간을 들여 바이오엑스포장을 찾을 수 있다. 바이오엑스포장은 KTX 오송역 인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개최된다.

□ 조직위는 종단열차를 활용한, 도내 남부(보은·옥천·영동)와 북부(충주·제천·단양)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엑스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 행사인 엑스포에 보다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 종단열차 활용은 남·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바이오엑스포 관람은 물론 주변의 청남대, 고인쇄박물관, 수암골 벽화마을 등 충북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1석 2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충북도가 9월 25일~10월 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가을 관광주간과 엑스포 행사기간이 겹쳐 특별 프로그램 및 할인업체 혜택을 얻는 등 더욱 실속 있고 알짜배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지난 5월 1일 개통된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는 동대구를 출발해 대전, 오송을 거쳐 단양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와 영주를 출발해 오송을 거쳐 영동으로 가는 하행선 열차를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고 있다.

□ 영동에서 단양까지 최초의 남·북 직통 종단 노선으로 도내 15개역에서 최대 20개 곳곳의 역에 정차함은 물론, 기존 버스를 이용할 때 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차영 사무총장은 “충북종단열차를 이용하면 도내 어느 곳에서나 오송 바이오엑스포장을 손쉽고 가깝게 찾을 수 있다”면서 “바이오엑스포도 관람하고 충북 곳곳의 관광지도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2까지(17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KTX오송역 인근)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충청북도, 공보관(043-220-2067)| 등록일 : 2014.09.16.)

[충청남도] “외국인 관광객 까다로운 입맛 잡는다”

– 12일 외국인 편의음식점 컨설팅 사업 관련 양방향 소통회의

□ 충남도가 도내 음식점의 외국인 접객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컨설팅 사업에 음식점 업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팔을 걷고 나섰다.

□ 도는 12일 당진시청에서 전문가와 도내 음식점 업주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편의음식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양방향 소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도에 따르면 ‘외국인 편의음식점 컨설팅 사업’은 올해 도내 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접객능력 향상 및 경영개선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도는 지난 2008년부터 10개 시·군 79개 업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총 100개의 외국인 편의음식점을 지정해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 주요 컨설팅 사업의 내용으로는 ▲우리지역의 음식을 알릴 수있는 전략메뉴 개발 ▲외국인 문화에 맞는 메뉴 등 자문 ▲실무위주 조리실습을 통한 적응력 배양 등이다.

○ 이외에도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소양교육 ▲외국인 이용 전문음식점 견학 ▲2014년 컨설팅업소 품질유지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 지정 업소는 사업종료 후 3개월간 매월 1회 업소를 방문해 후속관리, 정보제공,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컨설팅 이후 최종 외국인 편의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홍보 및 자부심 함양을 위해 도지사 지정 외국인 편의음식점 인증표지판도 제작·설치해 주고 있다.

□도는 이날 열린 양방향 소통회의에서 컨설팅 대상 도내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오는 11월까지로 예정된 컨설팅 계획에 반영,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사업종료 후 편의음식점 영업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설문조사해 보완·개선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식의약안전과(041-635-4332)| 등록일 : 2014.09.12.)

[충청남도] “가을 가족여행 농촌체험마을로 오세요”

– 9월 25일 ~ 10월 5일 가을철 ‘농촌관광 가족주간’ 운영

□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올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해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가을철 ‘농촌관광 가족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농촌관광 가족주간은 도내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수확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장 풍부한 가을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 및 우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도는 도내에 더 많은 농촌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시설, 마을 특산품, 숙박시설 등에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족주간 통합이용권’을 농어촌공사 웰촌포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쿠팡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도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농어촌공사 웰촌포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내 농촌체험마을의 축제, 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즐길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 손권배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가을철 농촌관광 가족주간에는 다양한 농촌관광 코스 개발 및 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적극적인 할인 협조, 다양한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041-635-4025)| 등록일 : 2014.09.17.)

[충청남도] “반딧불이의 화려한 군무 청양서 즐겨요”

– 20~21일 청양 고추문화마을서 ‘반짝반짝 지천 반딧불이 축제’

□ 충남도는 20일부터 이틀간 청양 고추문화마을에서 자연 사랑과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반짝반짝 지천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축제는 도와 푸른청양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을밤 감성을 달랠 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 세부 일정을 보면 첫날인 20일에는 학생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반딧불이 서식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청양 지천생태공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이날 저녁 8시부터 청양 고추문화마을에서는 ‘개똥벌레 삼각걸음 퍼포먼스’와 ‘개똥벌레 열린가족무대’, ‘늦반딧불이 탐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려 가을밤 정취를 도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 등으로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반딧불이 관찰과 체험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이는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에는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꽃반딧불이 등 8종이 서식하고 있다.

□ 도내에는 청양 대치면 칠갑산산꽃마을과 운곡면 신대리 및 지천변, 논산의 대둔산 수락계곡, 금산 제원면 용화리 마달피 일원 등에 서식하고 있다.

(충청남도, 환경정책과(041-635-4420)| 등록일 : 2014.09.17.)

[충청남도] “덕산온천서 마음 따뜻한 힐링 즐기세요”

– 10월 2일부터 덕산 일원서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 오는 10월 2일부터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일원에서 열린다.

□ 이번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충남도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예산군과 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천년치유, 덕산온천 힐링으로 날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 예로부터 덕산온천은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저서인 ‘충보’에서도 덕산 온천수를 효능이 탁월한 약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 이번 축제 첫날에는 ▲온천발전 심포지엄 ▲행복예산 가족한마당 ▲행복예산 바이러스 ▲개막식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 둘째 날부터는 ▲충남도청 이전 2주년을 기념하는 ‘내포사랑! 예산사랑!’ 자전거 대행진 ▲덕산온천 트로트가요제 ▲버블축구대회 ▲무선조정 모형자동차대회 ▲학생예능 경연대회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 충남도청 이전 2주년 기념 ‘내포사랑! 예산사랑!’ 자전거 대행진은 행사 둘째 날인 10월 3일이 도청 이전 641일째인 점에 착안해 641명의 자전거 마니아들이 축제장에서 내포신도시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펼치게 된다.

□ 이외에도 축제가 열리는 덕산온천 일원에서는 ▲온천수 난장 ▲온천수 워터볼·보트장체험 ▲온천 힐빙체험 ▲온천 족욕체험 ▲온천 트릭아트체험 ▲이동동물원 ▲에어바운스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온천테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도 관계자는 “덕산에는 상처 입은 학 한 마리가 논 한가운데서 물을 찍어 바르고 3일 만에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온천이 유명한 곳”이라며 “이번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해 도민들이 신경통과 같은 육신의 고통은 물론,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까지 씻고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2815)| 등록일 : 2014.09.22.)

[전라북도] 가을 관광주간, 전라북도를 즐겨라

– 9월 관광주간(9.25~10.5), 가족과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코스와 할인행사 준비로 전북관광 활성화 노력

□ 전라북도는 오는 9.25~10.5일 11일간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간을 시행한다. 관광주간은 국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하여 도입된 관광정책으로 5월에 이어 9월 '가을 관광주간' 시행으로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에 전라북도는 가을철 관광주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지사, 음식·숙박업 협회, 여행사, 지역대학 등을 통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특별 여행코스 개발, 이벤트, 할인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북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관광주간 전라북도 특별 코스 운영

○ 관광주간을 맞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가족 힐링을 주제로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16개 특별여행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운영할 예정이다.

- (역사문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이성계 발자취를 따라' 등
- (자연생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도보여행(순창) 등
- (가족힐링)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부부탐방코스(진안) 등

○ 또한 여행코스는 20대 청춘여행, 30~40대 가족 및 학습여행, 50대 동창 여행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도 및 14개 시군의 16개 특별여행코스 별도 붙임

□ 관광지 및 숙박·음식점 등 이용 할인참여 확대

○ 지난 5월 관광주간은 세월호 사고로 실질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9월 관광주간은 전국 및 우리 지역의 많은 업소가 할인에 참여하여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1,781개(숙박 369, 음식 547, 체험 237, 쇼핑/공연 142, 관광시설 431, 기타 55)

*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한 할인업소 1,964개

- (전북)145개(숙박 34, 음식 60, 체험 16, 쇼핑/공연 10, 관광시설 21, 기타 4)

○ 전라북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전라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www.gojb.net)

를 통해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해당 업체에 제시하면 10~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주간 전라북도 대표여행코스 '순환관광버스' 운행

○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편하고 쉽게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를 돌아 볼 수 있도록 관광주간맞이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행함으로써 전북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2014. 9.26 ~ 10.5 (9일간), 3대, 탑승요금 10,000원 / 출발지 (한옥마을)

  * 도내에서 1박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에 한하여 50% 할인

□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관광주간 기간 중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후기 또는 사진을 올리면 소정의 기념품 및 특산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 '관광주간 함께 여행가고 싶은 친구·가족을 소환하라', '순창 찍Go, 선물 받Go', '무주 관광특별이벤트', '남원관광 미션을 찾아라', '전라북도 관광지 방문 후기올리기(도 홈페이지)' 등

□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연되는시군별 다양한 문화공연을 적극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 전주마당 창극 '아나 옜다, 배갈라라!'(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상설공연(전주), 마이산 특별사진전, 영화상영(진안), 광한루 연가 춘향(남원) 등

-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뮤지컬 춘향, 퓨전전통국악공연 등

□ 관광객 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 등

○ 전라북도는 9월 관광주간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도내 숙박·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환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4일 관광주간 홍보 및 관광객 맞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대캠페인) '14. 9. 24(수) 11:00, 전주한옥마을, 관광서비스종사자 (200여명)

○ 또한, 할인 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주간이 될 수 있도록 시군별 관광주간 비상연락망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전라북도는 지난 9.12일 개최된 '관광주간 지역협의회' 회의를 통해 관광주간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지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

사 등 지역의 기관·업체의 협력을 통해 관광주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관광 활성화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광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ojb .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관광산업과(063-280-3333)| 등록일 : 2014.09.18.)

[전라남도] 전남도, 해양헬스케어단지 유치 나선다

–섬·갯벌·해양자원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 각광

□ 전라남도가 최근 휴식과 힐링, 건강을 위해 해양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해양헬스케어단지는 해양 기후, 해수, 해조류, 갯벌, 소금 등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치되면 단순 치유 목적의 해양자원 활용을 넘어 침체된 전남의 해양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도가 해양헬스케어단지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까지 전국에 4개소의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이다.

□ 전남도는 도내에 2천219개의 섬, 1천37㎢의 갯벌, 6천475km의 해안선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여건과 장점을 잘 부각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 ‘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장소를 발굴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당위성과 지역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다.

□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복, 김, 다시마 등 풍부한 수산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수도권보다 8배가 많은 산소 음이온 등 해양헬스케어의 중요한 자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해양헬스케어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만큼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20)| 등록일 : 2014.09.15.)

[전라남도] 부산국제관광전 전남관광홍보관 최우수 홍보상 수상

– 가을 관광지, 관광주간 여행상품 집중 홍보

□ 전남도는 9. 12 ~ 15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남통합관광홍보관을 운영,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여수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완도군과 공동 운영한 전남 통합 관광홍보관은 대형 멀티비전을 통한 전남도 관광 홍보영상 상영, 시·군별 홍보이벤트, 전남관광 카페 가입자 대상 쌀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 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2014 가을 관광주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명량대첩축제 등 가을 남도축제, 울돌목 거북배 체험을 홍보하고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남도한바퀴』상품권도 할인 판매하는 등 관광주간을 앞두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 그리고 해외 전세기 및 자유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중국 광저우 소재 여행사 관계자들과 B2B 상담을 실시하여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환승 제도, 남도음식 체험이 가능한 쌀박물관 등 겨울철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실버·청소년 교류단체 유치도 타진했다.

□ 전남도 김명원 관광과장은 “때묻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피어난 특색있는 관광지와 넉넉한 인심으로 빚어낸 맛깔스런 남도음식이 있는 전남은 힐링 관광의 최적지”라며 “가을 관광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14 부산국제관광전에는 전세계 40개국의 240개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430개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관람객 101,67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40)| 등록일 : 2014.09.17.)

[전라남도] 남도골프·관광 팸투어를 통한 수도권 공략

– 수도권 언론인, 파워블러거 초청 홍보효과 극대화

□ 전라남도는 9.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남해관광 등과 협력하여 수도권 언론사 관계자 및 파워 블러거 등 20여명의 전문가를 초청 남도골프·관광 팸투어를 실시한다.

○ 이번 팸투어는 2015년초 서울~광주간 KTX 개통에 대비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도골프·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일정은 영암 아크로와 장흥 JNJ 등 골프장 3개소에서 직접 라운딩을 하고, 영화 “명량”의 촬영지인 울돌목 일원과 담양 소쇄원, 무등산(서석대, 입석대)를 답사하는 등 전남·광주의 골프 인프라와 남도 관광자원을 안내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다

□ 최근 들어 골프장의 수가 늘어나 경쟁이 심해진 가운데 경기 침체와 세월호 사건 이후 내방객 감소로 전남 도내 골프장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코레일, 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수도권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골프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에 대해서 골프장업계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 JNJ의 김윤수 본부장은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인해 골프장 업계가 침체돼 있는데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수도권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골프투어 상품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5월 출시한 남도골프투어 상품은 그린피 할인, 코레일 및 항공요금 할인 등 1박 2일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4,800여명이남도골프 투어 관광상품을 이용해서 남도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 남도골프관광상품을 운영하는 남해관광에서는 앞으로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코레일내에 전용객실 등을 마련하여 수도권 대상 관광객 뿐아니라 중국과 일본인 골프 관광상품을 추가로 운영 할 계획이다.

□ 온라인 통합판매사이트(http://namdogolftour.co.kr)를 방문하거나 전국 소재 주요 여행사를 통하여 남도골프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김경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지역내 골프장 및 유관기관, 여행사 등과 협력

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골프장 서비스를 개선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30)| 등록일 : 2014.09.17.)

[전라남도] 전남도, 다도해 명소화를 위한 「흑산도·영산도」 섬 여행

- 9. 19~9. 21까지 2박 3일, 역사와 힐링의 섬, 흑산도·영산도여행 추진

□ 전남도는 오는 9. 19(금)~21(일) 2박 3일 동안,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는 흑산도에서 섬 여행 마니아 53명을 대상으로 섬 여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명품 섬 여행상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언론사, 여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섬문화 1번지로 흑산도하면 누구나 쉽게 떠오르는 것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미자의 노래 '흑산도 아가씨'와 유배지에서 어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던 정약전의 '자산어보'이다. 이런 의미와 역사를 간직한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더한다.

□ 한편, 일상적인 여행지의 식당이 아니라 영산도 부녀회에서 직접 마련한 섬밥상과 체험활동으로 실시하는 섬마을 떼배 타기, 영산도 산행, 방파제 낚시는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여행에서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실현함으로써 섬 여행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 이와 함께 흑산도 일주, 해양문화·유배문화 탐방, 흑산도·영산도 해상관광투어, 영산도 명품마을 탐방 및 체험, 흑산도 예리마을 탐방, 특산물 쇼핑(홍어, 전복, 돌김, 미역 등) 등도 이루어진다.

□ 특히 지난 2011년부터 다도해 명소화를 위한 섬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오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는 섬 여행 마니아는 "다도해와 섬도 좋지만 싱싱한 해산물로 차려진 섬밥상과 토속적인 문화, 그리고 주민들과 허물없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이 행사의 백미다"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여행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도 e-Book으로 수록하여 섬 여행 마니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남도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이후 섬 여행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섬지역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섬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섬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60)| 등록일 : 2014.09.18.)

[전라남도] 농업박람회, 40만 관람객·300억 농가 소득 기대

-10월 23일 농업기술원서 개막…농업기술관 등 차별화로 비즈니스 박람회 준비

□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에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30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와 달리 전문 농업기술관과 농업홍보관 등 전시관별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공무원이 함께 하는 참여 박람회, 체험 및 공연마당을 통한 관람객들의 만족박람회로 치를 계획이다.

□ 특히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과 농업인 성공사례를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품종,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업 재배기술 등 시험연구 성과물도 전시해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며 배워가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

□ 관람객 유치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농업 관련 유관기관 등 4천여 곳에 홍보용 포스터·홍보전단 15만여 부를 배부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타 시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 관련 산·학계 종사자, 농업인단체 등 많은 농업 관련자가 생생한 신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대사인 가수 최유나 씨를 통해 활발한 박람회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휴양지, 등산로, 지자체 행사장 등에 현수막 설치 및 홍보전단 배부를 통해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황수정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산비 절감기술 등 최신 농업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판촉하는 기술박람회, 비즈니스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061-330-2741)| 등록일 : 2014.09.18.)

[경상북도] 천년고도를 물들이는 터키 판타지

□ 천년고도 경주의 가을이 '이스탄불 판타지'로 물들고 있다. 지난 12일 경주 황성공원에서 개막한 '이스탄불 in 경주 2014'행사장에 연일 구름인파가 몰리면서 행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식부터 사흘간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무려 2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에도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연인, 친구, 국내외 관광객 등 '이스탄불 in 경주'를 찾아온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 비잔틴 제국에서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명의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 예술, 공연 등을 보기 위한 긴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 이스탄불 전통가옥의 모양을 딴 '그랜드 바자르'부스와 아름다운 톱카프 궁전을 모티브로 한 메인 무대, 이스탄불에서 유행하는 현대 미술을 모티브로 한 '이스탄불 홍보관'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 친구들과 행사장을 찾은 최형우(경주 황성초 5학년) 어린이는 "책에서만 보던 터키 이스탄불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다"면서 "그랜드 바자르에서 터키인이 만들고 있는 공예품을 보니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이국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 이스탄불 홍보관 인기 만점

ㅇ 특히 보스포루스 대교를 거닐며 제국의 역사를 보고 3D 영상관으로 이스탄불을 생생하게 체험 할 수 있는 '이스탄불 홍보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ㅇ 이스탄불 홍보관은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매력이 집약돼 있는 곳이다. 14일에도 이스탄불 홍보관 입구에는 긴 대기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ㅇ 서울에서 여자친구와 행사를 보기 위해 황성공원을 물어서 왔다는 김준우(22.대학생) 씨는 "이스탄불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3D 영상관과 축소된 모형이지만 보스포루스 다리를 거닐면서 이스탄불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ㅇ 실제로 마치 헬기를 타고 이스탄불을 날아다니며 관광하는 느낌을 주는 3D영상관은 특히 인기다. 블루모스크, 성소피아, 처녀의 탑, 돌마바흐체 궁전 등 이스탄불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화유적이 손에 잡힐 듯 하다.

ㅇ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 시장이 자비로 관람객 가운데 네명을 터키로 초청하는 깜짝 이벤인 '나도 이스탄불에 간다'에는 응모가 쇄도하고 있다. 행사장 입구 종합

안내소에서 응모권을 받아 이스탄불 홍보관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터키로 날아 갈 행운의 기회가 생긴다.

□ 케밥 · 아이스크림 판매장에 관람객 발길 이어져

○ 행사장내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은 뭐니 뭐니 해도 '그랜드 바자르'. 열린 공간에 터키의 은공예, 보석 공예, 유리 공예, 자수, 실크 카펫 등이 부스별로 늘어서 있다. 터키인과 함께 통역요원도 있어 공예품에 대해 물어 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은 살 수도 있어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축제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식도락이듯 먹거리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터키 케밥을 맛보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다.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의 케밥은 중국, 프랑스 요리와 함께 세계 3대 요리의 하나로 꼽히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 인근 터키 전통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하루 평균 1만6000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

□ 포항시 · 울릉군 문화교류 행사엔 박수 세례

○ 터키 이스탄불의 민속 공연 못지않게 경북 도내 시군들이 참여하는 '이스탄불시와의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인기 절정을 이뤘다.

○ 13일 이 행사의 첫 무대를 장식한 포항시의 공연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도약하는 포항'으로 명명된 이날 공연은 사회적 기업인 '포항아트 챔버오케스트라'가 '패션',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주옥같은 곡을 연주했다.

○ 포항시에 이어 무대를 마련한 것은 울릉군. 독도사진전과 함께 민족의 섬, 독도의 모섬 울릉은 독도가수 정광태 씨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서예가 박경원 씨가 대붓으로 '독도애심(獨島愛心)'을 쓰는 퍼포먼스를 마련했다.

○ 이어진 공연은 '독도사랑 응원 플래쉬 몹'과 비보이 공연. 대구경북 대학생연합응원단과 비보이들의 힘찬 율동에 관중들이 합세하며 독도 사랑에 동참했다.

○ 사회를 본 정광태 씨가 '독도는 우리 땅''독도는 한국 땅'을 이어 부르며, 관중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울릉도에 많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압둘라만 쉔 이스탄불 in 경주 2014 사무총장은 "사실 한국인들의 호응이 이정도로 대단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스탄불이 한국의 천년 수도 경주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터키와 이스탄불 문화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대변인(053-950-3057)| 등록일 : 2014.09.15.)

[경상북도] “포항 자연생태공원으로 가을여행 떠나요”

□ 푸른빛을 뽐내던 수목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바뀌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전국 국립공원과 유명 명산에는 가을을 일찍 즐기기 위한 등산객의 발길이 주말마다 끊이질 않는다.

□ 경북 포항에도 도심 가까이에서도 가을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16번지 일원에 있는 중명 자연생태공원이 그 곳이다.

□ 지난해 12월 완공된 중명 생태공원에는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와 자연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다.

□ 공원에 들어서면 넓은 해시계 광장과 솟대, 돌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탐방로를 비롯해 스틸아트가 전시된 잔디광장, 약용식물이 가득한 약용원, 야생화가 가득한 야생화원, 향기원, 습지원 등 테마별로 다양한 식물들과 개구리, 나비 등 곤충들도 만나볼 수 있다.

□ 졸졸 흐르는 계곡 옆으로 길 따라 많은 나무와 야생화들이 있다. 느티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등 한 번은 들어봤던 낯익은 나무들도 있고, 화살나무, 박태기나무, 꽝꽝나무 등 생소하지만 이름이 재미있는 나무도 가득하다.

□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있는 '나의 이름은 뭘까요'라는 표지판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살짝 열어보면 나무 이름과 설명이 적혀 있어 아이들의 자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또 곳곳에 소리 채집기가 있어 귀를 대면 자연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야생화원을 끝으로 생태숲은 끝나고, 전망대, 옥녀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300여 미터만 올라가면 포항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시원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 특히 공원만 둘러보지 말고 꼭 전망대에 올라가 보는 것이 좋다. 높이 18m의 전망대는 UFO 형상을 하고 있어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 김지연(39세, 여)씨는 "도심 가까이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어 가족들과 자주 찾는다"며 "일상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힐링 장소로 매력만점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대변인(053-950-3057)| 등록일 : 2014.09.19.)

[경상남도] 라스베가스의 관광도시 노하우, 진해 웅동으로

– 美 라스베가스市 스타브로스 앤써니 부시장 경남 방문

□ 경남도가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미국 유명 관광도시 라스베가스의 부시장인 스타브로스 앤써니(Stavros Anthony) 부시장이 경남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 앤써니 부시장은 경제개발국장인 패트릭 시너트(Patrick Sinnott)와 동행하여 9월 14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지 방문, 도지사 면담, 사업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9월 17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카지노 유치시 대형 카지노 기업과의 관계 모색 등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 졌으며, 당초 캐롤린 굿맨(Carolyn Goodman) 라스베가스 시장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관계로 부시장이 방문하게 되었다.

□ 앤써니 부시장 일행은 9월 15일 홍준표 도지사, 도 투자유치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갖고 경남도와 라스베가스 시 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 양 지자체 간 MOU는 복합리조트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경남도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조성의 노하우를 라스베가스 시로부터 전수받게 된다.

□ 앤써니 부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남도-라스베가스 간 관광 교류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자의 시각에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해 갈 것으로 보인다.

□ 이 날 홍준표 도지사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므로 시장성이 충분하며,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과 Blake Field와 같은 대형 개발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서, “라스베가스 시가 지닌 복합리조트 개발의 노하우와 카지노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라스베가스 시는 1930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인구 5,0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사막지대였으나, 현재 주변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다.

□ 한 때는 도박도시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국제회의

시설, 고급 골프장과 쇼핑센터 등을 다수 갖춘 관광도시로 발전했다.

□ 경남도는 라스베가스 시 전체가 초대형 복합리조트라 불리는 만큼 앤써니 부시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진해 웅동 프로젝트의 복합리조트 조성에 선진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투자유치단(055-211-3112)| 등록일 : 2014.09.15.)

[경상남도] '2014 가을 관광주간' 올가을, 추억 여행은 가을향기 진한 경남으로!

- 관광주간(9월 25일~10월 5일) 동안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교통, 숙박 등 할인행사
- 남강유등축제, 독일마을맥주축제 등 경남 곳곳 가을축제 풍성

□ 경남도는 정부의 관광정책과 발맞추어 올해 5월에 이어, 9월에도 가을 관광주간을 설정, 그동안 여름 휴가철에 집중돼 온 국내의 관광수요를 분산하고 국내관광 붐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 가을 관광주간은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1일간 운영되며,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된다.

□ 이에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경남관광협회, 지역대학, 숙박업, 음식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9월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을 관광주간 경남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주간의 차질없는 추진과 홍보로 가을 경남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는 '가을 관광주간' 맞아 경남의 청정바다와 가을산 등을 소개하는 10개 맞춤형 추천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30~40대 가족여행, 50대 동창여행 등 연령층에 맞는 타깃별로 제공하고, 이 기간 동안 '통영문화마당 작은음악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통영 숲길따라 힐링체험', '창원 창동예술촌에서 10종 예술아트 즐기기', '1억 4천만 년 태고의 신비 우포늪 바로알기 체험'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또한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해상공원, 유람선터미널, 미술관, 전시관 등 경남 주요관광지 입장료와 공공운영 캠핑장, 민박, 한옥체험 숙박업, 관광지호텔 등 경남지역 관광 관련 업소 106곳이 참여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을 관광주간' 기간 동안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아울러 도와 18개 시군은 교통, 숙박, 음식 분야 등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주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광업계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광주간 맞이 홍보·환대 캠페인을 주요 관광지 및 다중집합 장소 등에서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온 국민이 가족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관광주간 내 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관광주간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경남도는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http://gntour.com/)에 '가을 관광주간'

경남 10개 추천 여행코스, 관광주간 특별프로그램 및 주요관광지 할인제공 현황 등을 상세히 제공한다.

□ 관광주간 기간 동안 국내여행 정보는 정부공식사이트(fall.visitkor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055-211-4813)| 등록일 : 2014.09.18.)

[경상남도]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경남 관광 알린다

– 경남도, 특색있는 '경남홍보관 운영' 으로 하반기 관광수요 창출 기대

□ 경남도는 국내외 관광객 경남유치를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7회 인천아시아 주경기장에 도, 시군 합동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도는 이번 홍보관 운영과 함께 경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아시아 관광객에게 알리고, 특히 '유오커' 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광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하반기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는 45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방송보도진만 7000명에 이르고 예상관객은 35만 명(내국인 19, 외국인 16)이며 일일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달한다.

□ 경남도는 경기대회 기간 동안 경남의 가을철 축제, 대표음식,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의 '명량' 의 국내외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전면에 이순신 장군을 캐릭터로 내세우고, 한류영향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장사도의 '별에서 온 그대 '에 착안, ' 대한민국 관광의 별 '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를 내세워 관람객의 눈길을 끌 계획이다.

□ 또 이번 홍보관에 참여하는 4개 시군(사천·김해·거제시,합천군)과 함께 사천의 다래와인, 김해의 산딸기 와인, 거제의 몽돌빵, 합천의 한우육포 등 특산물을 선보이고 개막식에 미스경남을 출연시켜 경남의 대외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하반기 관광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경남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경남도 안상용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인천아시아 주경기장 경남홍보관 설치로 아시아권 관광객과 수도권 지역 관광객에게 경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경남 관광 홍보에 전력을 다해 2014 관광주간 기간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055-211-4283)| 등록일 : 2014.09.18.)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한라산 동·식물의 요람이 되다.

– 탐방객 큰 폭으로 증가 올해 20만명 웃돌 듯

□ 한라생태숲은 훼손돼 방치됐던 야초지를 복원, 조성한 곳이다. 가시덤불이 우거졌던 곳에 2000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2009년 개원,올해 5주년이 되었다.

□ 한라산 자락(해발 600~900m)에 자리한 한라생태숲(면적 196ha)은 구상나무숲과 참꽃나무숲, 산열매나무숲, 단풍나무숲 등 13개의 테마숲으로 조성돼 있다. 한라산 고지대와 1100고지 습지대, 능선에 서식하는 자생식물들로 조성 되어 한라산 식생의 축소판이다.

□ 사람이 도와주고 숲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자라나 완성되어 감으로써 현재, 식물 130과 760여종, 포유류와 조류 등 36과 60여종, 곤충 107과 440여종이 살고 있어 한라산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 산림욕장에는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무지개색 깃털을 가진 팔색조가 번식과 산란을 위해 찾아들고, 수생식물원 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장군도 목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긴꼬리딱새가 서식하며, 두견이, 붉은배새매와 더불어 제주특산종 제주족제비와 오소리, 제주도룡뇽 등이 있다.

□ 한라생태숲과 절물자연휴양림을 잇는 숫모르숲길은 혈관처럼 얼기설기 나무가 우거져 한라산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준다. 예덕나무, 때죽나무,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등 다채로운 식생과 숲의 진면목은 도민들에게 오름 트레킹 코스로서 인기가 높다.

□ 숫모르숲길 입구에 자리한 연리목은 서로 다른 수종인 고로쇠나무와 때죽나무가 오랜 시간 맞닿아 살며 하나가 된 신기한 모습으로 탐방객들의 사진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한라생태숲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의 식생파괴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훼손지 복구를 위한 구상나무 묘목생산 등 멸종위기수종에 대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순화 적응시험을 하고 있다.

□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후계림 조성을 위한 왕벚나무 조직배양과 묘목생산 성공 등 자생식물 증식과 보존에도 힘써 산림생물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식생복원사업을 통해 원래의 숲보다 더 훌륭한 산림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 계절마다 독특한 색채를 지닌 한라생태숲은 휴양림이나 수목원과는 또 다른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봄에는 꽃길트레킹, 여름에는 웰빙 피서지로 가을에는 한라산 단풍과 야생화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한라산을 대신하는 적설기 눈길 트레킹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종가시나무 등 난대수종부터 시로미와 구상나무 등 한라산 고산대 생태계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편안한 휴식공간은 학교 소풍과 체험활동 장소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원아에서부터 청소년과 도민, 관광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탐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개원 5년이 되는 올해는 노약자 탐방로 포장, 숫모르숲 정비,파고라, 야외탁자 보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ㅇ 9월 현재 탐방객은 13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6%가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20만명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숲체험 탐방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460회 7

□ 한라생태숲은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09년 개원 전까지 기반조성사업에 12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부터 보완조성사업에 59억원이 투자되어 총 181억원(국비 108, 지방비 73)이 투자되었다.

□ 한라생태숲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와 정자, 그늘용 나무 식재와 송이길 탐방로를 조성하여 기상특보시를 제외한 전천후 트레킹 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였으며, 테마숲 전체를 연결하는 휠체어·유모차 탐방로를 개설·정비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탐방객 눈높이에 맞춘 편의시설을 보완·조성했다.

□ 한라생태숲은 자연을 되살린 숲의 모델로서 산림휴양서비스 실천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정책과(064-710-8681)| 등록일 : 2014.09.15.)